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bostonkoreanrealestate.com
Diane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이승철 콘서트, 1천여명 관객 모여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29일 하버드 대학 메모리얼 교회(Memorial Church)에서 열린 이승철 콘서트 천 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을 이뤘다.

탈북 청년 합창단 '위드유(With-U)'와 함께한 무료 자선 콘서트는 '통일된 나라(One Nation)' 라는 주제로 관객의 열띤 호응과 감동 속에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콘서트에는 학생들을 비롯해 다

양한 연령층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한 가족 중심의 관객이 많아 눈에 띄었다.

가슴을 울리는 아리랑의 전주와 함께 탈북 청년 합창단의 '홀로 아리랑' 이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숙연해진 분위기를 이어 가수 이승철이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이 공연을 마련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탈북한 청년들이 세계 공통 언어인 음악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 수 있음은 간절한 통일에 대한 염원 때문" 이며 "독도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됨의 꿈을 실현하려는 이 청년들을 응원해달라" 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분위기를 전환시켜 이승철의 본격적인 콘서트가 이어졌다. 이승철은 자신의 히트곡인 '희야', '네버엔딩 스토리',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마지막 콘서트' 등의 노래부터 최근에 발표했던 'My love' 까지 무려 10여 곡을 열창했다. 자리를 메운 천 여명의 하버드 학생과 지역 한인 관객들은 기



지난 29일 열린 무료 자선콘서트에서 이승철이 뜨거운 호응속에 본인의 히트곡을 10여곡 열창했다



하버드 신입생 70%가 첫째 아니면 막내

가족중에 하버드 졸업생 있는 신입생도 2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하버드 신입생들은 백인이 62.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인도계를 제외한 아시아인의 비율이 24.3%로 그 다음을 이었다. 히스패닉은 12%, 흑인 11%에 각각 머물렀다. 인도계 하버드 입학생은 무려 4.5%에 달했다.

2014년 하버드에 입학한 신입생(2018년 졸업반)들을 대상으로 한 하버드 일간지 더 크림슨의 이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 중 첫째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막내가 28.6%에 달했다. 중간에 속하는 자녀의 입학확률은 14.9%였고 독자인 경우 15%에 달했다.

부모나 친척 중에 하버드 졸업생이 있는 경우 전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금주의 매물

Rental Listings

- 52 River St, Newton, 3 beds, 1.5 baths, 2 cars garage, \$2,900
- 701 Hammond St #1 Brookline, 3 beds, 1 bath, 1 parking, gas and electric 포함, \$2,800
- 116 Burkhal St #0 Weymouth, 2 beds, 1 bath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탈북 청년 합창단과 함께한 무료 자선 콘서트 '통일된 나라'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려

▶▶1면에 이어서

립한 가운데 손을 흔들거나 박수 갈채를 보내며 열띤 호응을 보였다.

이승철과 탈북 청년 합창단은 6개월 동안 준비한 콘서트의 주제곡 '그 날에' 를 영어로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승철과 탈북 청년 합창단은 지난 8월 14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서 '그 날에' 를 처음 발표했고, 하버드 공연을 기점으로 더 많은 곳에서 세계적인 가수와 함께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무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승철은 "내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비무장지대(DMZ)에서의 평화 콘서트를 추진 중에 있다" 고 전했다.

이 날 공연은 가수 이승철과 19명의 탈북 청년 합창단, 보스턴 음대-버클리 음대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무대를 장식했다.

공연 이후에는 한식 브랜드인 '비비고' 와 풀무원에서 공식 협찬한 1000인분의 비빔밥과 라면이 지역 한인인과 하버드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었다.

dyoo9146@bostonkorea.com



콘서트 끝에는 가수 이승철과 탈북청년 합창단이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곡 '그 날에'를 함께 불렀다



이 날 천여명의 관객이 몰려 이승철과 합창단을 향한 열성적인 호응을 보냈다

이승철,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가수 이승철이 하버드까지 오게 된 계기는 탈북자 청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오늘날 탈북을 시도하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가난과 굶주림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이승철 본인과 합창단의 노력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원한다고 했다

지난 30일 하버드 메모리얼 교회(Memorial Church)에서 열린 이승철 콘서트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승철은 탈북 청년 합창단과 공연을 함께 하게 된 계기와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 글로브(Boston Globe), 영국의 '더 가디언(The Guardian)' 등의 외신

과 한인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기자 20여명이 모여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다음은 이승철과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이다.

▶탈북 청년 합창단과 공연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탈북 청년들이 찾아와 노래 지도를 부탁하며 독도에서 노래를 발표하고 싶다고 했다. 더 나아가 스스로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찾아왔다.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북한과 탈북자라는 문제 때문에 처음에 많이 주저했지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천 만원을 모아 독도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의 진정성과 열망을 봤다. 그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합창단과 함께한 경험이 어떠한가?

아이들의 노래 실력은 엉망이지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고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고 & 셋팅 펴고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펴고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2면에 이어서

만 노래의 진정성은 그 누구보다도 뚜렷하다.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도 왜 노래하는지 모르던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독도와 유엔(UN)을 거치며 하버드에 오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존해야 한다는 의식만이 보였던 눈이 음악으로 하모니를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눈으로 변했다. 음악은 세계 공통언어로서 퀄리티보다는 진정성이 전달되는 법이다.

▶공연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탈북자가 가난하고 배가 고프아서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고정된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 온 아이들은 김일성 대학 출신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인데,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열망과 배우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탈북했다.

스스로를 독도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탈북 청년들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 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10월 초에 2부작으로 구성된 탈북 청년 합창단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방영될 예정이다. 특별히 내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비무장지대(DMZ)에서 통일을 노래하는 평화콘서트를 하고 싶다. 세계적인 가수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하버드가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없이 이어가게 되는 것 같다.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세계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하버드 공

연을 계기로 한층 더 높은 이상과 꿈을 꾸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요즘 젊은 세대는 탈북자나 통일 같은 정치적 이슈에 무덤덤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음악인들이 통일과 같은 이슈에 큰 관심이 없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다. 마

지막 끈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 통일의 기운은 소멸될 수 있다. 정치인이 아닌, 민간단체가 아닌, 북한에서 살다 온 순수 탈북 청년들이 그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dyoo9146@bostonkorea.com



공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승철은 공연의 취지와 탈북청년 합창단의 향후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다

12일 개봉 '해적' 무료 티켓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코리아는 오는 12일 리비어 상영관(Showcase Cinema de Lux Revere)에서 개봉하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무료 티켓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적이 7백만 관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www.bostonkorea.com)에 게재된 기사 아래 댓글로 남기면 15명을 추첨하여 티켓을 증정한다. 총 15명에게 두 장씩 돌아가는 서른

장의 티켓은 평일 티켓 20장(총 10명), 주말 티켓 10장(총 5명)이며 주말 관람 티켓은 가장 재미있거나 설득력 있는 5명에게 돌아간다. 주말 티켓은 '해적'이 개봉하는 주말 12일부터 14일까지, 평일 티켓은 15일부터 18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고래가 삼켜 분실된 국새를 찾기 위해 나선 산적들의 모험을 그린 액션코

믹영화 '해적'은 지난 1일 7백만 관객을 돌파해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배우의 라인업으로는 손예진, 김남길, 유해진, 오달수, 설리 등이 있다. '해적'이 개봉하는 리비어 상영관에는 현재 '명량'과 '군도'가 상영 중에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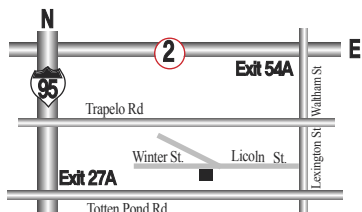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케빈 나와 노승열, 보스톤에 찾아온 프로골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8월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노턴(Norton)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케빈 나(나상욱, 타이틀리스트)와 노승열(나이키) 선수가 참가해 지역 한인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노턴 소재의 TPC 보스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도이체뱅크(Deutsche Bank) 챔피언십에서는 세계적인 프로골퍼들이 3차전 비엠더블유(BMW)

챔피언십으로 진출할 티켓을 놓고 뜨겁게 경쟁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17살에 프로골퍼가 된 케빈 나(나상욱)는 현재 세계골프랭킹 35위다. 2011년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우승한 이후로 다음 우승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접촉 사고로 허리를 다쳐 현재까지 약간의 디스크 증세가 있지만 “프로골퍼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신체적 결함일 뿐”이라며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는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케빈 나(나상욱)는 이번 대회에서 5오버파 147타로 컷 탈락해 페덱스컵 순위가 13위에서 21위로 밀렸지만 여전히 3차전에 진출할 수 있다.

한인 팬들에 대해 케빈 나(나상욱)는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는 한인 팬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주니어 골퍼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가능한 어릴 적부터 골프를 시작하라고 권장하고 싶다”며 “프로골프 세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가한 노승열은 이전 대회까지 페덱스컵 47위였던 랭킹을 36위까지 끌어올리며 무난하게 3차전에 진출했다. 탑 10에 진입한 노승열은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7살에 골프를 시작한 노승열은 지난 4월 PGA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컵을 따내며 떠오르는 유망주로 각광받고 있다.

두 번째 보스톤을 방문하는 노승열은 “2012년 처음 보스톤을 방문했을 때 야구장이나 다운타운을 관광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챔피언십 공동 9위로 TOP 10에 진입한 노승열 선수



도이체뱅크 챔피언십 시험 후 페덱스 순위 21위로 3차전 진출하게 된 케빈 나 선수

이어 “이번 투어에 참가한 한국 선수 모두가 끝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며 앞둔 3차전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노승열은 프로골퍼의 꿈을 꾸는 보스톤의 어린 골퍼들에게 선배로서의 조언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기와 체력을 강조했다. “스윙은 어떤 코치에게 지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립이나 어드레스와 같은 기본기는 정말 중요하다”며 “늘 좋은 습관을 갖기를 힘쓰고 체력을 단련시켜

야 한다”며 덧붙였다. 이번 도이체뱅크 챔피언십 우승은 미국의 크리스 커크(Christ Kirk)에게 돌아갔다. 커크는 최종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세계랭킹 1위였던 로리 맥길로이를 제치고 1위의 영광을 안았다.

함께 참가했던 최경주 선수(44, SK텔레콤)는 최종 합계 4언더파 280타 공동 35위로 대회를 마치며 2년 만에 플레이오프 3차전에 진출하게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미리 알고 즐기는 매사추세츠의 가을 페스티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늦여름의 더위도 한풀 꺾이기 마련이다. 매사추세츠는 곧 다가올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즐거운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미리 알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가을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탑스필드 페어(Topsfield Fair, Topsfield)

기간: 2014년 10월 3일~13일
1818년에 처음 시작된 농업박람회로 각종 퍼포먼스와 놀이기구, 농경문화체험 등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의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다. 매년 행사의 꽃이 되는 가장 큰 호박박람회도 기대해 볼 만한 코너다(2012년에는 세계 기록을 갱 1톤이 넘는 호박이 출품됐다).

티켓을 미리 구입하면 \$9에 평일과 주말 언제든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살 경우 평일과 주말 티켓이 각각 \$11과 \$15이니 미리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8세 미만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도시락을 싸갈 수 있으므로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을 준비해 가면 돈도 아끼고 더욱 단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207 Boston Street, Topsfield, MA 01983

978-887-5000

www.topsfieldfair.org

▶킹 리처드 페어(King Richard's Faire, Carver)

기간: 2014년 8월 30일~2014년 10월 19일

킹 리처드 페어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가장 크고 오래된 르네상스 페스티벌이다. 잠시 현대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쾌한 행사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퍼포먼스와 연극, 서커스, 게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는 \$5에서 \$20, 어른은 \$25에서 \$60이면 르네상스 의상을 대여할 수 있다.

입장료는 어린이 \$16, 어른 \$29이며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경우 별도의 서비스비 \$2이 붙는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는 현금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 3세 미만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235 Main Street, Carver, MA 02330

508-866-5391

kingrichardsfaire.net

▶빅 이(Big E, West Springfield)

기간: 2014년 9월 12일~28일

북동부 최대 축제 중 하나인 '빅 이'는 다양한 전시회와 서커스, 말타기, 자동차 쇼, 국제음식을 즐길 수 있는 뉴잉글랜드의 큰 행사다. 특히 크림 퍼프(Cream Puff)와 크래이지 버거

(Craz-E Burger)는 꼭 먹어보길 추천한다. 17일 동안 열리는 이 행사는 매일 다른 퍼포먼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웹사이트(<http://www.thebige.com/fair/>)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9월 10일까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살 수 있다. 티켓은 어른 \$12, 어린이(6세~12세) \$8이며, 1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패스는 어른 \$40, 어린이 \$20이다.

1305 Memorial Ave, West Springfield, MA 01089

413-737-2443

<http://www.thebige.com/fair>

▶내셔널 크랜베리 페스티벌(National Cranberry Festival, Carver)

기간: 2014년 10월

에다빌(Edaville)의 연례 행사인 내셔널 크랜베리 페스티벌은 크랜베리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다. 크랜베리 수

확을 몸소 체험하며 크랜베리를 사용한 요리 시범을 감상할 수 있다. 음악회가 함께 열리며 아일랜드 전통 춤을 추거나 조랑말과 헬리콥터를 탈 기회도 제공된다. 무엇보다 크랜베리 농장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열차라이드가 이곳의 빼 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다.

입장료는 \$10이며 각종 놀이기구 이용을 포함한 가격은 \$19이다. 2세 미만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날짜와 프로그램은 웹사이트(<http://www.edaville.com>)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7 Eda Avenue, Carver, MA, 02336

508-866-8190

<http://www.edaville.com>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시민협회 주최 시민권 취득 워크샵 성황리에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8월 30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의 주최로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열린 워크샵에는 젊은 한인 청년 30여명이 참석해 시민권 취득과 취업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날 시민협회

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참석자들의 각종 서류와 신청에 관한 과정을 검토하고 도와주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김성균, 성기주 변호사가 신규-시민권 신청서 점검에 도움을 주었고, 이경해 회장을 비롯한 박영찬 부이사장, 크리스틴 김 이사, 신 리디아 이사, 김

성혁 이사가 워크샵 진행을 도왔다. 한인이 밀집한 뉴욕과 LA의 경우에는 현재 시민권취득 워크샵이 중단된 상태지만 보스톤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워크샵이 개최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성요한 한인교회에서 열린 시민협회 주최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에 참석한 한인 청년들

한미예술협회 제2회 협회전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협회전이 오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렉싱턴 소재 아트앤크래프트 소사이어티(Arts&Craft Society)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에는 19명의 한인 작가가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올해는 피터 하인즈(Peter Haines)가 초대작가로 함께 참여한다.

참여하는 한인 작가는 대부분 뉴잉글랜드 지역 작가로서 차원재, 조미애, 유니스 최, 최혜경, 황지영, 강달래, 김희정, 김사울, 이은주, 이한카, 이재욱, 이지인, 김영숙, 나성숙, 신영, 심은주, 유수래, 윤창우, 김영아가 있다. 전시회 일정: 9월 20일~10월 5일 (화~금요일/일요일: 오후 12시~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130 Waltham Street, Lex-

ington, MA 02421 리셉션 일정: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4시 dyoo9146@bostonkorea.com



'명량' 박스오피스 수익 2백만불, 신기록 행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영화 '명량'이 북미 박스오피스 수익 2백만불을 돌파하며 보스톤을 포함한 40여개 극장에서 연장 상영할 것을 확정했다. 개봉 6일만에 백만 달러를 찍고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을 기록했던 '명량'은 식을 줄 모르는 흥행을 이어가며 9월 2일 미국 박스오피스 전산 시스템 렌트랙(Rentrak)의 극장 매출 기준으로 \$2,129,484를 달성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2007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196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8월 29일-31일) '명량'은 전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스크린당 매출 2위(\$6,890)을 기록

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와 같은 흥행에 보답하듯 현재 '명량'을 상영중인 40여개 극장 대부분은 다음 주까지 연장 상영한다.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유수한 할리우드 스튜디오 영화를 제치고 '명량'이 여전히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극장이 많다"며 "극장 측이 앞다투어 상영을 연장하고 개봉 확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량'의 장기 흥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리비어 상영관에서는 '명량'과 '군도'가 상영 중이며 '해적'도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 찬양콘서트 장소 변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6, 7일(토요일, 일요일) CCM(현대 기독교 음악) 가수 김도현의 찬양콘서트가 웨라튼 코멘더 호텔(Sheraton Commander Hotel)과 쓰리 타임스 교회(Three Times Church)에서 열린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곡으로 잘 알려진 CCM가수 김도현의 콘서트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요일 콘서트는 웨라튼 코멘더 호텔의 마운트 버논 볼룸(Mount Vernon Ballroom)에

서 오후 4시에 열리며 일요일 콘서트는 쓰리 타임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찬양콘서트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언약'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일정: 9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웨라튼 호텔, 마운트 버논 볼룸(16 Garden St., Cambridge, MA 02138) 9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쓰리 타임스 교회(50 Quincy St., Cambridge, MA 02138)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주최 친선골프대회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2014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립모금 친선 골프대회 행사를 가졌다.

많은 한인 회원의 참여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골프대회는 조봉섭 한인회 건립위원장의 인사말과 이종민 준비위원장의 골프대회 규칙설명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는 8개 조로 나뉘어 샷건 방식으로 티오프를 했다. 참가자들을 위해 이필영 부녀간사와 지상욱 전 간사, 강순 이사가 김밥과 간식을 준비하

며 행사를 도왔다. 이번 행사의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 Gross 1등: 한경철, 남자 Gross 2등: 이안근, 남자 Gross 3등: 옥동석
남자 Net 1등: 이원중, 남자 Net 2등: 홍치선, 남자 Net 3등: 정석훈
여자 Gross 1등: Mrs. 김, 여자 Gross 2등: 전일순
여자 Net 1등: 조원경, 여자 Net 2등: 박영완
Senior Gross 1등: 김종선
Hole 9: Longest Drive: 안경철

Hole 12: Closest-to-the Pin (CTP): Mrs.김

Hole 18: Longest Put: 김종선
경로상: 김종선, 인기상: 김재정
수고상: 지명숙, 노력상(꿀찌상): 노은선, 기특상: 지미림

매년 연례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대회에 이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에서는 오는 10월 25일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한국전통음악축제(Korean Traditional Music Festival)를 기획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한 한인회관 건립모금 친선골프대회에 많은 한인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인청소년문화봉사단 '아띠' 신입단원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청소년문화봉사단 '아띠' (이사장: 이강원, 디렉터: 장동근)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 및 역사와 음악, 미술 3개의 분야에서 활동할 2014-2015년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과학 및 역사 분야 프로젝트는 이강원 교수(URI)와 김병국 교수(Umass)가 디렉터로 있고 한국 발명품과 유네스코 지정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한다. 모집 정원은 10명이다. 미술

분야 프로젝트에서는 4명을 모집하며 장동근 전 뉴욕주립대 교수가 디렉터로 있다. 한국 걸개그림을 연구하며 지역 한인 예술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 2회 모임을 가지며 모집대상은 9학년~12학년 학생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9월 15일 까지 atti2014@googlegroups.com으로 이름(한글과 영문), 학교 및 학년, 지원분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보내면 된다.

'아띠'는 한국 전래동화를 번역, 출판하고 보스톤 어린이 박물관에서 열렸던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국문화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바 있다.

지원 마감 날짜: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모집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학생 (9학년~12학년)

bostonkorean@hotmail.com

올해 하버드 신입생들 중 아시안의 비율 24.3%

▶▶1면에 이어서

체 27%에 달했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하버드 졸업생인 경우 신입생은 16%로 대물림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친척 중 하버드와 연관없는 신입생들이 73%에 달했다.

전체 신입생의 61%가 공립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공립고 중 차터스쿨 졸업생은 2%에 불과했다. 사립고 졸업생은 38%로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일반 사립은 27%, 카톨릭 사립은 11%였다. 홈스쿨링도 0.2%에 달했다.

지역적으로는 역시 하버드에서 가까운 지역의 합격율이 높았다. 미 동북부 출신이 전체의 43.1%이나 차지했으며 서부 출신은 16.9%에 불과했다. 동북부 출신일수록 졸업 후 보스톤에 남겠다는 비율이 70%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한달동안 하버드 크립슨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중에 70%가 조사에 응했다.

hsb@bostonkorea.com

강주리 불펜화 작품 전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화가 강주리의 불펜화 작품 전시회가 지난 2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스톤 뉴베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나가(NAGA) 갤러리에서 열린다.

'트러블드 파라다이스(Troubled Paradise)'라는 주제로 전시되는 작품들은 정교한 펜 놀림으로 변형된 동식물을 묘사한다.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바다 생물과 해초 등의 기형적 변화를 묘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화가 강주리는 "현대적인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배나 생명공학 등의 발전으로 '자연'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작품으로 묘사한다.

나가(NAGA) 갤러리에는 화가 강주리의 작품과 함께 화가 페리 슈와츠의 작품이 동시에 전시된다.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나가 갤러리(Gallery NAGA)에서 오프닝 리셉션이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 일정: 9월 2일~10월 4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리셉션 일정: 9월 5일 오후 6시~8시

전시회장: 나가 갤러리 (Gallery NAGA), 67 Newbury Street, Boston MA 02116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지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t.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예비선거 코 앞, 다수 주민들 후보조차 모른다

9월 9일 예비선거 출마 민주당 및 공화당 후보 분석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9월 9일 주선출직 예비선거를 앞두고 상당수의 MA 주민들은 주지사, 법무장관, 재무장관, 감사 출마 후보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글로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부주지사 후보자들 중 누구를 찍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60%가 재무장관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3명이며 부주지사 후보가 3명, 법무장관 후보가 3명, 그리고 재무장관 후보가 4명인 것을 아는 유권자도 사실상 드물다. 더구나 후보자 이름을 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블루 스테이트로 알려진 매사추세츠 주는 주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본선의 승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화당의 거의 단독후보인 반면 민주당 후보는 복수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9월 9일 예비선거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사 선거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주지사 후보부터 살펴보자. 공화당 후보로는 찰스 베이커와 마크 피셔가 경쟁하고 있다. 온건한 보수주의자인 찰

스 베이커는 지난 2010년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드벌 패트릭 현 주지사와 경쟁해 패한 바 있다. 베이커는 지구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건강보험을 인간의 권리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반면 티파티 출신의 마크 피셔 후보는 극우 보수주의자다. 기후변화는 봄 가을처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은 자동차, 집과 같은 좋은 것 중의 하나이며 결코 기본권이 아니다. 그는 당원 중 15%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으나 소송을 벌여 후보명단에 이름을 넣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는 마사 코클리 현 법무장관, 스티븐 그로스맨 현 재무장관 그리고 돈 버워 전 메이커 앤메디케어 장관이 출마했다. 마사 코클리는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의 사망으로 인한 2010년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공화당 후보인 스캇브라운에게 패했으나 여전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코클리 후보는 2010년 선거 초반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지만 언론에 친화적이지 못하고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다 친 서민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중도성향 스캇 브라운 후보에게 역전패 당했다.

민주당 후보 모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MA 주 카지노 법안에서는 서로 의견이 갈렸다. 돈 버워 후보는 “카지노는 커뮤니티를 붕괴

민주당



민주당 주지사 후보, 좌로부터 돈 버워, 마사 코클리, 스티븐 그로스맨

시키고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마사 코클리 법무장관은 비록 카지노를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카지노 허용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가 출신은 스티븐 그로스맨 후보는 카지노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로드 아일랜드와 커네티컷으로 빠져나가는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했다.

특히 최근 퍼거슨시 인종차별 사태에 대해 세명의 후보 모두는 경찰과 정부가 좀더 많은 훈련을 받고 커뮤니티와 신뢰관계를 쌓았다면 사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로스맨 후보는 지난 보스톤마라톤 테러 사태후 드벌 패트릭의 대응을 가리키며 “제이 니슨 미주리

공화당



공화당 주지사 후보 찰리 베이커, 마크 피셔 (좌로부터)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민주당 부주지사 후보 좌로부터
틀랜드 청, 스티븐 케리건, 마이클 레이크

주지사가 드벌 패트릭 처럼 했어야 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부주지사 선거

민주당 부주지사 후보로는 틀랜드 청, 스티븐 케리건, 마이클 레이크 등 3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한다. 아시아 아메리칸인 틀랜드 청은 현재 케임브리지 시의원이다. 스티븐 케리건은 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매사추세츠 군인펀드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평생 기후변화 문제에 집중했다. 마이클 레이크는 보스톤 소재 비영리 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스페셜 어시스턴트로 일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부주지사 후보로 캐린 폴리토가 단독으로 나와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는다.

법무장관 선거

이번에 관심을 끄는 선거는 민주당 법무장관 후보다. 모라 힐리와 워렌 톨맨이 이번 예비선거에 나섰다.

오래 전에 주지사와 부주지사에 출마했던 워렌 톨맨은 전 매사추세츠 주 상원 출신이다. 스스로를 프로그레시브 즉 민주당내 중도 좌파 정도라고 평한다. 시 오거나이저로서 일하면서 탄탄한 정치적 인맥을 쌓아온 인물이다. 샘윤과도 친분이 있다. 톨맨은 과거 거슨 사태에 대해 “수년간의 경찰업무 태만” 이라고 규정하고 경찰의 인종구성 다양화, 커뮤니티와의 신뢰 구축, 경찰의 공정화 등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마사 코클리 법무장관 밑에서 일했던 모라 힐리는 여성과 게이·레즈비언에 관심이 많다. 모라 힐리는 오스트리아에서 프로 농구선수로서도 일했으며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특히 결혼

을 남자와 여자로 규정해 연방 혜택을 제한했던 디펜스 메어리지 액트를 철폐하는 데 역할을 했다.

공화당 후보에는 존 밀러가 단독으로 출마해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는다. 존 밀러는 로펌에서 건축법관련 리더 역할을 한 3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다. 부인은 안과의사다.

재무장관 선거

민주당 재무장관 후보로는 토마스 콘로이, 베리 파인골드, 드보라 골드버그 3명이 투표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승자는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단독 후보인 마이클 제퍼난과 싸운다. 토마스 콘로이는 주 하원 의원, 베리 파인골드는 주 상원의원이다.

콘로이 의원은 예일 출신에 존스홉킨스, 보스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각각 획득했다. 주 전체 무료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을 줄이고 유연한 카본 세금 부과를 선호한다. 파인골드 의원은 매사추세츠 법대를 졸업하고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획득했다. 그는 매사추세츠 연금펀드를 스톡비즈니스에 두 배로 투자 확대를 원하고 있다. 골드버그는 보스톤 칼리지 법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다. 여성과 소수민족에 균등한 임금을 강조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MA주 법무부 장관직에 출마한 워렌 톨맨, 모라 힐리 (좌로부터)

매사추세츠 유권자 무소속 다수

민주당이 우세했던 블루 스테이트 이젠 옛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민주당 텃밭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권자들은 대다수가 무소속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가 매사추세츠 주 주무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53%의 유권자가 무소속으로 등록해 있다. 35%가 약간 넘는 수가 민주당, 그리고 11%가량이 공화당으로 각각 등록해 있다.

무소속 유권자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투표가 가능하지만 각 당으로 등록된 유권

자는 소속 정당의 후보에게만 투표가 가능하다.

주내에는 4백 20만명의 등록된 유권자가 있다. 보스톤, 브루클라인 등이 속해 있는 서퓸 카운티는 가장 민주당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53%가 민주당으로 등록했다. 이와 반면 케이프 코드에 포함된 반스터블 카운티는 가장 공화당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16%가 공화당 유권자였다.

올해 9월 9일이 예비선거 그리고 11월 4일이 본선이다.

hsb@bostonkorea.com

미세 번째 에볼라 환자 MA주 출신 의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라이베리아에서 의료선교 헌신했던 매사추세츠 출신 의사가 세 번째 미국 에볼라 감염환자로 밝혀졌다.

리차드 새크라(51) 가정의는 우스터 병원에서 훈련받고 일했었다. 지난 20여년간 라이베리아에서 일했던 그는 에볼라 환자를 돌보지 않았지만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하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크라 박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열이 났으며 1일 에볼라 환자로 밝혀졌다. 그는 기독교 선교 단체인 SIM이 운영하는 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SIM의 회장 브루스 존슨 씨는 새크라 박사를 미국으로 돌려 보낼지 아직 확정을 못했다고 밝



했다. 다른 두 명의 에볼라 환자인 켄트 브랜들리, 낸시 라이트볼 박사는 애틀란타 에모리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회복됐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호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에머슨대 만연한 성폭행과의 전쟁 선언

올 가을 학생들 상대로 익명의 설문조사, 타 학교들 꺼리는 성폭행 실태 밝혀질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에머슨 대학은 캠퍼스에 만연해 있는 성폭행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올 가을 학생들을 상대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다.

오는 11월에 실시될 예정인 익명 설문조사는 캠퍼스 성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 중의 하나다.

“성폭행 문제가 향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가능하다” 는 에머슨 대학 리 펠톤 학장은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설문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에머슨은 익명의 설문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에머슨 대학은 만연한 성폭행의 실태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대응정책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자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봄학기까지 분석되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들은 좀더 정확한 조사로 인해 지금껏 보고된 성폭행 사건 외에 더 많은 실제 성폭행



사태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설문조사를 거부해 왔다.

미국 내 익명의 성폭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의 여대생들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약 88%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공식적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머슨이 이 같은 조취를 취하기에는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에머슨은 일단의 여학생 피해자들이 미 교육부에 학교의 성폭행 조사 태도가 미흡했고 대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청원을 제기하자 급히 전담 대책반을 꾸려 이를 조사했으며 이 대책반의 권고에 따라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청원 후 미 교육부는 조사에 나서 현재까지 각 대학들의 대책을 조사중에 있다. 에머슨은 현재 조사받고 있는 미국 내 70개 (매사추세츠 주내 9개) 대학 중의 하나다.

에머슨은 9월 1일부터 포괄적 성희롱 정책을 실시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불편한 상황이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바로 학생들의 개입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에머슨 대학은 또한 학생, 교수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방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올스톤 대형 화재 54명 거주지 잃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가주순두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하버드 테라스 12번지 아파트에서 3일 오후 5시 30분 대형화재가 발생해 50여명이 거주지를 잃었고 7명이 부상당했다.

소방관들은 극히 혼잡한 올스톤의 하버드테라스에 5시 47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이미 불꽃은 천정을 뚫고 나온 상태여서 소방관들의 건물진입 금지 명령이 발부될 정도였다. 화재는 2시간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보스톤 소방서에 따르면 5명

의 소방관이 부상당했으며 이중 2명이 어깨부당과 유독가스 흡입으로 후송됐다. 2명의 구경꾼들도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조셉 핀 보스톤 경찰 서장은 54명이 이번 화재로 집을 잃었다고 밝혔다. 54명을 위한 임시 쉼터는 인근 잭슨 만 공립학교에 마련됐다.

경찰서장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건물 뒷편에서 시작됐으며 바로 천정으로 확산됐다.

hsb@bostonkorea.com



3일 밤 올스톤 하버드테라스 화재현장. 소방관들은 좁은 하버드 테라스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 애비뉴 CVS 앞 공간에 소방차를 정차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정관장



홍삼정 100주년 기념

한가위 대잔치

8월 31일(일)부터 9월 15일(월)까지



+



홍삼정 240g 구입 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46상당
Free Gift

* 본 행사는 매장별 한정수량이며, 제품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명품 홍삼 정품 정관장 제품은 미주 40개 가맹점 및 지정 판매처에서만 판매합니다.

**정관장 홍삼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115년 정관장의 원칙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산 6년근 고려인삼만을 100%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로 사용하며 최고의 설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고 만들어집니다. 태생부터 다른 정관장 홍삼은 타 홍삼제품이 모방하지 못하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 보다
안전합니다.**

과대광고 제품과 다양한 속설에 주의하세요. 홍삼은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을 증삼하여 부작용을 줄였으며 체질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MA주 온라인 실업급여 시스템 문제점 드러나

많은 실직자들 수개월 동안 어려움 겪어... 노동부 공무원들도 이메일에서 불만 토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4,600만 달러를 투자해 구축한 실업 급여 온라인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첼 카프리엘리언 노동부 장관은 현재 실업 급여 시스템이 안정화 되었다고 밝혔다. 많은 환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 정부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실업 급여를 청구하고, 실업 급여 지불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을 시작했다고 1년 전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스톤 글로브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몇 달 동안 실업 급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정보 공개법에 의거하여 실업 급여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실업 급여를 청구한 실직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수백통을 입수하였다. 이메일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사람들과 기업주들이 잘못된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실업 급여와 관련된 불편 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로는 실업 급여가 늦게 지불되는 경우와 잘못된 주소지로 체크가 발송된 경우가 많았다. 실업 급여가 제 때에 지급되지 않던 집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었으며, 뇌종양을

템이 잘못되어 집행되지 않았어야 할 80만 달러가 지불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있었다. 온라인 시스템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레이첼 카프리엘리언 노동부 장관은 초기 몇 달 동안 문제들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였으며, 지금은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 급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주고 받은 이메일 중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못되어 집행되지 않았어야 할 80만 달러가 지불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있었다. 온라인 시스템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jsi@bostonkorea.com

홈디포 대규모 카드 정보 유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주택과 관련한 용품을 취급하는 소매상점 홈디포에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홈디포는 지난 2일, 해킹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 및 은행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플라 드레이크 홈디포 대변인은 "우리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우리가 극도로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홈디포는 정보 유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홈디포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파악되면 즉시 해당 고객에게서 알려겠다고 발표하였다. 카드 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지면 홈디포의 주가는 2% 이상 급락하였다.

홈디포의 카드 정보 유출 사실은 온라인 보안을 주로 담당하는 크랩스 온 시큐리티가 처음 발표

했다. 크랩스는 "홈디포 매장에서 대량으로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 정보가 도난 당한 상황을 다수의 은행들이 보고했다" 며 "이런 고객 정보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고 밝혔다.

크랩스는 2,200개에 달하는 홈디포 매장 중 얼마나 많은 매장에서 신상 정보가 누출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지난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크랩스는 홈디포에서 유출된 정보가 4천만 건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타겟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홈디포 해킹 역시 타겟을 해킹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AP는 보도했다.

jsi@bostonkorea.com

젠자임 신규 출시 약, 약값만 연 31만 250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 소재 바이오테크 회사 젠자임(Genzyme)이 고세병(Gaucher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 시판한 약의 일 년치 가격을 31만 250달러로 정했다.

28일치 약값이 2만3천800 달러인 이번 신약은 젠자임의 대표 브랜드인 교세병 치료약 세레자임에 비해 3.4% 비싼 가격이다. 세레자임은 단백질 효소 대체 치료로 매 2주마다 2시간의 약 주입시간이 필요했었다.

새로 개발한 캡슐제인 서텔가는 하루에 2번의 캡슐을 복용하면 고세병을 치료할 수 있다. 고세병은 미국 내 약 2천명의 환자만 있는 희귀병이다.

서텔가의 비용책정은 최근 증가

하고 있는 의료비용의 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는 하루당 1천불의 약값이 의료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됐었다. 소발디는 질리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약으로

미국 내 3백 20만명의 환자들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약값은 1년 간 무려 36만불에 달한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869-4989




EXCLUSIVE

\$ 23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BEDFORD 지역 단독주택

\$619,000, 3 BEDS, 2 BATHS, 2,010 SF, 1.3 Acre Lot Siz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갤럭시노트4 출시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베를린=연합뉴스) 옥철 기자 = 3일 독일 베를린과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 등 3개국 동시 언팩(Unpacked)으로 베일을 벗은 삼성의 패블릿(phablet) 신작 갤럭시 노트4와 노트 엣지는 '스펙(사양)'면에서 전반적으로 경쟁사 제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갤럭시 노트4는 5.7인치 쿼드HD 슈퍼아몰레드(2천560×1천440)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화면이 커지는 않았지만 전작인 노트3의 풀HD보다 2배 향상된 화질이다.

LG전자[066570]의 전략 스마트폰 G3는 5.5인치 쿼드HD 디스플레이를 쓴다. 최근에 완성된 G3 패밀리의 최

신작 G3 스타일러스도 마찬가지다. 오는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에서 공개될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6는 4.7인치와 5.5인치 화면의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도 쿼드HD 디스플레이를 쓸 것으로 보인다.

소니가 이번 IFA 2014에 들고올 것으로 전해진 엑스페리아 신작 Z3는 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갤럭시 노트4보다는 한 단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는 신제품 어센드 메이트D에 6.1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깔았지만 화질 자체는 풀HD급으로 알려졌다. 레노버의 바이

브72 프로 신제품도 쿼드HD급인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 노트 엣지의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는 경쟁업체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노트4의 카메라는 후면 1천600만 화소로 G3(1천300만 화소)보다 약간 우세하다.

반면, 소니의 엑스페리아 신작이 2천70만 화소 카메라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노트4는 전면 카메라가 370만 화소로 이전 시리즈보다 거의 2배로 화질을 끌어올렸다. 그만큼 셀피(셀프카메라) 기능을 강화했다.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OIS)는 경쟁사들도 거의 따라왔다.

갤럭시노트 신작 비장의 무기는 '엣지'

(베를린=연합뉴스) 옥철 기자 = 예상대로 옆면에 '비장의 카드'가 꽃혀 있었다.

3일 독일 베를린과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 등 3개국에서 동시 언팩(Unpacked) 행사로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 노트 시리즈 신작(新作)에서 단연 눈길을 끈 부분은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였다.

스마트폰은 전면으로만 들여다본다는 '통념'을 깬 시도다. 동영상을 보거

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옆 화면에서 메시지나 알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참 앞쪽 화면에 몰입된 상태에서 난데없이 뜨는 메시지와 알림은 심심찮게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측면에 대신 이런 정보를 '흘려줌'으로써 앞면의 몰입감을 유지하면서도 시선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의 혁신이 엣지 디스플레이에 녹아 있다.

스마트폰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도 엣지 스크린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옆면 디스플레이는 오른쪽에 곡면으로 매끈하게 감싸듯이 탑재됐다.

3화면 시대를 열기 위해 쿼드HD 플러스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깔았다. 2천560×1천440 픽셀에 엣지 화면의 160 픽셀을 더한 디스플레이이다.

폰뱅킹 확산에 은행 수수료 수입 '뚝'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 은행들이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수단이었던 수수료 수입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예금보협공사(FDIC)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은행들이 작년에 올린 수수료 수입이 32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수료를 올렸던 2009년(411억 달러)과 비교하면 21%나 줄어든 수치이다.

은행들은 수신금리 및 여신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외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미국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 중 절반 가량은 계좌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체크를 발행하거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데서 발생한다.

이 경우에 통상 미국 은행들은 1건당 35 달러를 부과한다.

2009년에 정점에 달했던 미국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온라인 뱅킹과 폰뱅킹이

퍼지는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계좌의 잔액이 없는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체크를 발행하거나 직불카드를 사용했다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잔액을 확인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실제로 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뱅킹 앱의 가장 보편적인 이용은 잔액 확인 및 거래내역 조회였다.

여기에서 금융규제 당국이 수수료 부과 규정을 강화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1건당 3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 2010년에 규제 당국이 특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꾼 탓에 은행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줄고 있지만, 미국 은행들의 전체 이익은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 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와계 교수
산양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 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IS, 또다른 미 기자 참수 동영상 인터넷 배포"

스티븐 소트로프 참수 주장... 백악관 "동영상 진위 확인 중"
참수 감행 IS전사 영국식 억양 구사...세 번째 영국인 인질 살해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극단주의적 수니파 반군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에 이어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31)를 참수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했다.

미국 언론과 이슬람 과격단체 웹사이트 감시기구인 '시테'(SITE) 인텔리전스 그룹에 따르면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이 동영상은 오렌지색 낙하산복을 입은 채 무릎 꿇은 소트로프가 칼을 든 IS 전사에 의해 참수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0일 폴리 기사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지 12일만이다.

동영상에 등장한 소트로프는 참수 당하기 전 카메라를 향해 "당신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소트로프의 목에 칼을 들이던 IS 전사는 검은 색 복장에 두건을 두르고 마스크를 썼고 영국식 억양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트로프를 참수하기 전 "오바마, 이슬람 국가를 향한 당신의 오만한 외교정책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며 "우리들을 향해 미사일을 계속 쏘다면 우리의 칼은 너희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는 물러나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둬라"고 말했다. 참수 뒤 잠시 정지됐던 동영상 화



극단주의적 수니파 반군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31) 참수 직전 상황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2일(현지시간) 자신들의 인터넷에 올린 모습.

면에는 곧 세 번째 인질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IS는 또 다른 영국인 데이비드 카우슨 해인즈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 외무부는 해인즈의 신원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논평을 하지 않았다.

IS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미국의 계속된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타임과 포린 폴리시 잡지 등에 기사를 보내는 프리랜서 기자인 소트로프는 지난해 8월 시리아에서 IS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0일 폴리 기자의 참수 동영상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백악관은 아직 동영상의 진위를 확

인하지 못했으며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도중 긴급 보도가 나오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백악관이 동영상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정보분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동영상이 진짜라면 우리는 무고한 미국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IS의 야만적 행동에 역겨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수 명의 미국인들이 IS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주 만에 또 미국인 참수... IS의 노림수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2주 만에 또다른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며 '강공'에 나선 목적은 미군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과 추가 공습을 막기 위한 협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한 영상을 배포한 IS는 2일(현지시간)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서 스티븐 소트로프로 추정되는 인물을 살해하면서 미국의 공습을 직접 거론했다.

이 영상에서 얼굴을 가린 채 칼을 들고 등장한 IS 조직원은 "오바마,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온 것은 IS에 대한 당신의 오만한 외교정책과 폭격을 계속한 고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군이 공습한 이라크 북부 아메를리야와 주마, 모술담 등을 언급한 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악의 동맹에 동참해 IS에 맞서려는 정부들에 뒤로 물러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미군의 공습에 보복하고 미군의 추가 공습이나 이를 지원하려는 다른 서방국가를 위협하기 위해 두 번째 미국인 기자를 참수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IS는 앞서 폴리 기사를 참수하기 전 미국에 1억유로(약 1천 300억원)의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돈이 참수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이 신문은 시리아 동부 유전과 이라크 중앙은행 모술지점을 장악한 IS가 이미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쌓아 역사상 최고 부자 테러단체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인질의 몸값은 IS에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복이나 협박 외에 TV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노출로 새 조직원을 모집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서방 국가 인질의 살해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마련이기 때문이

다. 텔레그래프는 IS가 알카에다를 제치고 이슬람 성전을 대표하는 무장세력으로 올라서려고 하며 이런 맥락에서 인질 참수를 조직원 확보 수단으로도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 기자와 소트로프로 추정되는 인물의 참수 영상은 2주 간격을 두고 공개됐지만 두 번째 참수가 이뤄진 시점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영상 속 IS 조직원이 가장 최근 미군이 공습한 지역을 언급한 점, 두 영상에 모두 등장하는 소트로프의 수염과 머리카락 상태 변화, 두 영상의 배경에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두 영상이 일정 기간을 두고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두 번째 참수 영상이 IS가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유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폴리 기자의 참수 영상은 IS가 직접 유튜브에 올렸지만 두 번째 참수 영상은 이슬람 과격단체의 온라인활동을 감시하는 영리단체 '시테(SITE) 인텔리전스 그룹'이 입수·공개하면서 알려졌다.

2007년 오사마 빈 라덴의 영상을 알카에다가 공개하기 전에 입수하기도 했던 시테 인텔리전스 그룹은 이번 참수 영상을 한 과일 공유 사이트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IS의 다음 참수 대상으로 영국인이 지목된 것과 관련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리실은 영국인 인질과 가족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 앞서나가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inishmore@yna.co.kr



오바마 "'이슬람국가' 위협 곧 극복 않겠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의 미국 기자 참수와 관련,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IS가 위협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탈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의 행위를 겨냥해 "미국과 에스토니아가 동맹임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체제' 합의에 대해서는 과거 합의가 여러 차례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고 이 합의가 지켜질지에 의문을 표하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유럽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2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향하는 버락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사용하도록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정을 지키는 에스토니아를 예로

들면서 나토 회원국이 제 몫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syang@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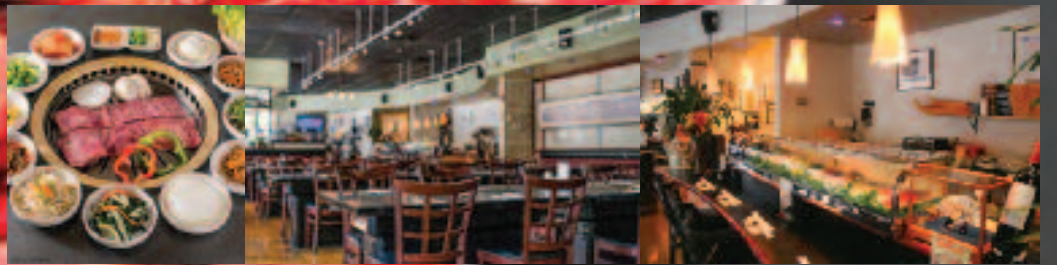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규제개혁 '속도전' 강조한 박 대통령 "잘못된 규제 화끈하게 풀라"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규제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다급함과 위기감이 묻어났다.

지난 3월말 1차 회의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론화'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회의는 1차 회의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규제효과'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논의라기 보다는 질책의 자리에 가까웠다.

이날 회의 제1세션에서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현장건의 규제 52건 가운데 43건은 정부내 조치를 완료했고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 중 90건이 완료됐다는 '성과 보고'가 나왔고, 제2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수십 건에 달하는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장관들의 보고와는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체감 온도는 차이가 느껴졌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회의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은 건축·입간판·입지·위생·인증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어려움을 쏟아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회의 내내 "현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如三秋·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의미)"라며 "하루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다음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쓸데 없는 규제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경쟁국은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는 데..." 등 우려감을 넘어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에 참석 장관들 모두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 말씀 좀 드릴게요"라며 말을 끊고 규제 감축의 건수보다 질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차 회의 때 제시된 규제개혁 추진과제들의 이행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각 부처가 좀 더 이것을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가 없었더라면 완료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규제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해 11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고에는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데 여러 건을 모아서 하게 되면 기다려야 한다. 개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즉각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면서 속도감을 갖고 일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김포 로컬 푸드 방문 때 풀겠다고 한 규제가 왜 아직 착수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급하다. 시간이 없는데 현장에서는 규

제를 풀겠다고 하면 그 다음날로 풀리는 줄 안다"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도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rakoca@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SEP. 5, 2014 - SEP. 11,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풍성한 한가위 식탁의 식욕을 돋궂줄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대표 건어물이 한자리에!

통통배 건어물

특판전

KOREAN DRIED SEAFOOD PRODUCTS SPECIAL SALE!

A variety of Korean Dried Seafoods are all here for a limited time only!
SEP. 5 - SEP. 7 Only at Hmart Burlington

the Full moon is Sept. 8th! Yay!

FULL MOON

FULL OF SAVINGS

It's Asia's most coveted festival! Let's enjoy the best time of the year.

H.마.트.가.드.리.는.풍.성.한.가.을.추.석.세.일

초립동이 참쌀 약과
CHORIPDONG
 Korean Traditional Snack
 11.28oz. ea./for **2\$5**

Fresh Ox Tail 소꼬리
\$8.99
 lb.

제주 갈치 Jeju Hairtail Fish
\$16.99
 lb.

타이거 모찌 메이커
TIGER Mochi Maker
 SMU-A18U/ea.
\$199.99

5TH ANNIVERSARY OF HMART IN MASSACHUSETTS

하마트 메사추세츠 진출 5주년 기념
 고객 감사 경품 대축제!

SEP. 12TH - OCT. 5TH, 2014
AT ALL MA HMART STORES

HMART IS CELEBRATING ITS 5TH YEAR OF BUSINESS IN THE STATE OF MA. IN ORDER TO THANK OUR LOYAL CUSTOMERS, WE HAVE PREPARED A VERY SPECIAL SWEEPSTAKES EVENT, ALONG WITH UNBEATABLE SAVINGS AND COOL PRIZES.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heck our poster or customer service.

<p>Smart Organic 100% DELICIOUS USDA ORGANIC H마트 유기농 제품으로 더욱 더 건강해지세요.</p>	<p>HORIZON Organic Milk 호라이즌 유기농 우유 All Varieties/64fl.oz. \$3.99</p>	<p>Radish 무 box \$16.99</p>	<p>C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69</p>	<p>Red Leaf Lettuce 적상추 lb. \$0.99</p>	
<p>Ginger 생강 lb. \$1.69</p>	<p>Onion 양파 10 lbs./bag \$5.99</p>	<p>Boneless Beef Rib 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lb. \$8.99</p>	<p>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p>	<p>Whole Chicken 통닭 lb. \$1.49</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5.99</p>
<p>Baby Octopus 푸꾸미 16-25's/lb. \$3.99</p>	<p>Porgy 흑돔미 lb. \$1.99</p>	<p>TONGTONGBAY Premium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3.49</p>	<p>BADAAECHAN Roasted Seaweed Laver 바다애찬 장흥군 무산 재래 도사락김 0.14oz. x 8ea./pkg. \$2.99</p>	<p>Kyong Gi Rice 경기미 15 lbs. \$9.99</p>	<p>CJ Cooked White Rice CJ 햅반 7.4oz. x 12ea./box \$12.99</p>
<p>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oz. x 16ea./pkg. \$9.99</p>	<p>OHSUNG Hong Bowl Noodle Soup 오성 홍사발면 Hot&Spicy/Kimchi 3.03oz. x 12ea./box \$7.99</p>	<p>GWANGCHUN Roasted Seaweed Laver w/ Green Tea 광천 농협 녹차 김 0.7oz. x 10ea./box \$9.99</p>	<p>Soybean Paste 청정원 재래식 안식생 원장 6.17 lbs. \$7.99</p>	<p>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2\$5 ea./for</p>	<p>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골뱅이 캔 14.1oz. \$4.99</p>
<p>MONINI Grapeseed Oil 모니니 포도씨유 33.3fl.oz. \$6.99</p>	<p>FOODCELL Peeled Chestnut 푸드셀 껍질간 생밤 14.1oz. \$3.99</p>	<p>PEI TIEN FOODS 12 Grain Crispi Roll Snack 12그레인 크리스피 롤 Original/6.35oz. 2\$3 ea./for</p>	<p>HANARO Portable Gas Stove 하나로 고효력 가스레인지 HSB-0907/ea. \$19.99</p>	<p>SONGWOL Towel Set 송월 타올 세트 4pcs/set \$22.99</p>	<p>WASAJI Apron 와사지 앞치마 Black/ea. \$11.99</p>

유족, 30분만에 퇴장...여 지도부와 면담 파행

유가족 "여론몰이에 악용...여아가 알아서 하라" 반발

(서울=뉴스1) 여태경, 김유대, 김영신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관련 3차 면담이 양측의 입장차로 연성만 높이다 결국 파행됐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에서 3차 면담을 가졌지만 새누리당이 '재협상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자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퇴장하면서 면담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양측의 만남은 지난 1,2차 때와 달리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첫번째와 두번째와 같은 그런 만남은 안하고 싶다"면서 "1,2차와 같이 우리를 설득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

다. 전명선 수석부위원장도 "유가족을 이렇게 여론몰이에 악용해서 만나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가 답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자꾸 양보안, 진전된 안을 말하는데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진상조사에 대해 합의해 놓은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안이 아직까지 유일한 공식적인 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결국 유족 대표들은 새누리당 측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김병권 위원장은 격앙된 상태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있다

면담장을 빠져 나오며 "새누리당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진정성이 없다"며 "이제 더 이상은 새누리당과 만나지 않겠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선) 여

아가 알아서 하고 유가족은 빠진다"고 밝혔다. 면담 파행 이후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 협상

대상은 야당"이라면서도 "오늘은 이렇게 됐지만 언제든지 유족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haru@news1.kr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유가족 요구 들어주면 모든 게 해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교차상대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중빈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은 청와대 지지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규제개혁에 대해 '눈 딱 감고 다 푸세요'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규제만 눈 딱 감고 풀라고 지시할 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도 '눈 딱 감고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하면 다 풀린다"고 했다.

또 "최근 KBS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월호특별법은 여아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53.7%나왔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쥐야 한다는 의견도 53.8%의 지지를 받았다"며 "진상 규명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여론도 60.6%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세월호법에 대해 처음 약속한대로 가족을 위해 풀어주면 막힌 국회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됐던 생때같은

자식 300여명이 바다속에서 정부의 잘못으로 구조 한번 못 받아보고 참사를 당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눈 딱 감고 한번 풀어달라고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대해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의장 중재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행사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와 의장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jy1@news1.kr

세월호 유족 유경근 "여, 앞에선 웃고 뒤에선 신상털고"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의 주치의인 이보라 서울시동부병원 내과과장에 대해 서울시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 "여당의 태도를 보면 앞에서 대화할 때는 웃으면서 잘 얘기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 뒤에서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도대체 이 과장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필요와 이유가 무엇

인지 굉장히 궁금하다"며 "이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바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이 느껴진다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의혹만 생기기 하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과연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저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상규명이 가능한 내용이 나

올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도 출연,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가 3차 회동 직전 '우리와 가족의 합의안에 대해 야당은 표결에만 참여하면 된다'고 말하더니 회담이 끝나고 나선 '협상의 대상은 야당'이라고 태도가 바뀌었다"며 "더 이상 여야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아가 한 목소리로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박 대통령

"규제,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몰아부쳤다.

강원도 홍천에 귀농해 '한과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희숙 씨가 환경규제로 인해 공장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자, 윤 장관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지역 폐수 관련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내년 중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공장설립이 상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요?"라며 "법 개정을 해서 하려면 내년에도 되겠냐"고 반문하며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

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불합리한' 건축물 심의제도로 인해 건축사업 자체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자, "아주 눈 딱 감고 풀어야 한다"고 말해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가) 워낙 실타래 같이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난다. 체감이 안된다"면서 "아주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토부는 푸셔야 조금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이라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있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 헤어컷
-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 트리트먼트
- Up-Do
- 메이컵
- 매니-페디큐어
- 왁싱
-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2014 즉문즉설 세계 100회 강연 8.26~12.18

법륜스님

희망세상만들기

보스톤 강연
9.24(수) 저녁7시



9.24(수) 저녁7시
Harvard Univ. Science Center Hall C
1 Oxford St, Cambridge, MA 02138
문의: (617)977-4227, (212)222-0636

<선착순 무료입장>

전체행사일정
www.jungtosociety.org
facebook.com/wehopeworld

주최: 경트회 | 주관: 정토회회의지부&보스톤열린법회

여 선진화법 헌법소원 추진에 "목수가 연장 탕" 당내서도 반발

(서울=뉴스1) 여태경,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 정국 타개책으로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들자, 선진화법을 이끌었던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자 전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역시 선진화법 개정을 시사하며 당이 내용에 휩싸였던 일이 재연하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 국회가 파행됐고, 부실국감, 법안·예산안을 줄속물아치기 심사·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선진화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때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법안만큼은 집권여당이 책임을 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이렇게 가도 되는지 많은 생각이 든다"며 "물론 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를 받을만 하지만 과연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저는 '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땅치 않다.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적 문제 검토를 다 검토해

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국회가 야당 동의 없이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더 지속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호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도 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표결주의를 봉쇄시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주의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회 식물화법, 국회의원 백수화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면 이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배"라며 "헌법소원을 포함해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 차원에서 선진화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이끈 당사자들은 "목수가 연장 탕을 하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1년 임기의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법안처리 성과가 없다보니 중앙감과 다급함, 조조함으로 선진화법을 타하는 논리를 충분히 펼 수는 있다"며 "그러나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선진화법은 신속 처리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없애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특별정족수(5분의3)를 규정한 것인데, 직권상정 부활 추진은 '시대 역행'이라는 주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운동에서 손발을 다 쓰던 물에 익숙하던 선수가 손을 못쓰는 축구를 하자니 물에 적응을 못해 답답해하는 것"이라는 비유를 들면서 "야당이 바뀐 법을 악용하는 것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다음 총선 등에서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법 정착에는 인내가 다소 필요하고 그 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바뀐 환경과 제도에 현재 우리 국회가 느리지만 점차 적응해 가고 있고 더 시간이 지나면 절충과 타협의 관행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지도부의) 목수 연장 탕하는 주장을 반

박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선진화법 선도그룹에 참여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선진화법을 국회 파행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선진화법의 취지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선진화법 선도의 중심이었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남경필 전 의원이 각각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로서 국회를 떠나며 선진화법 옹호그룹의 입지가 좁아진 것 역시 사실이다.

옹호그룹은 선진화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올초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했던 이른바 '그린라이트제'를 수긍 가능한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라이트제는 △야야 무쟁점법안 신속 처리 △국회의장-교섭단체-5선 이상 여야 의원 '원로회의'를 통한 권고 △일정 기간 협상 미타결시 자동 원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선진화법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선진화법 내용이 너무도 잘못 알려지고 있어 반박 설명 자료를 제작·배포해 여론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eriwhat@news1.kr

야 "선진화법 헌법소원은 여 무능 감추려는 꼼수"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과 관련해 "야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다 뻔한 꼼수"라고 맹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장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실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며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에 비취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녕 새누리당은 국회를 그저 통법부와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차마 망치와 쇠사슬이 드리워졌던 지난 국회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항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며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당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한탄할 일이지 애꿎은 국회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준비 마쳐"

(서울=뉴스1) 여태경,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이 2일 파행 정국 타개책의 하나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없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당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할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이름으로 할지 선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반 다수결이 아닌 5분의 3을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문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

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입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됐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 자동상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쟁점 법률안의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5분의 2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2년은 소요되는 만큼 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위한 압박용 카드로 풀이된다.

또 국회선진화법 마련에 여당 일부 의원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여당 내의 반발도 예상된다.

haru@news1.kr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담뱃값 인상, 최소 4500원까지... 과연 흡연을 낮아질까?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담뱃값 인상 의지를 보였다.

이어 문 장관은 "2004년 담배 가격이 500원 오른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을 하라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해서는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 연맹은 이에 반발하며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전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4500원까지 올리나", "담뱃값 인상, 말이 많을 듯", "담뱃값 인상,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yilee@news1.kr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담배를 진열하고 있다

김재원

"담뱃값, 천원씩 두 차례 나눠 인상 검토해야"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3~5년 경과를 두고 1000원씩 두 차례 나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상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담배 포장 경고 그림 및 문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담뱃값 인상 공론화에 앞장서왔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을 감소 효과가 크고 청소년·저소득층 흡연율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

그러나 물가 상승, 서민경제 부담,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적정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더라도 이번에 1000원, 3~5년 후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상 시기, 인상 방법, 담배 제세 부담금구조 개편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치료에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유독 금연 치료에만 국가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eriwhat@news1.kr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담배를 진열하고 있다

김용익 "정부 담뱃값 인상안, 반쪽짜리 계획"

"인상으로 거둔 추가세수, 어떻게 쓸지 솔직해져야 될 필요 있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과 관련, "(담뱃값 인상으로) 3조 정도를 걷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해 정부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담뱃값 인상은 양면자전으로, 한쪽에선 가격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은 거둬진 돈을 건강증진에 투자해 금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담뱃값으로 거둔 세수는) 2조원 정도인데, 절반인 1조원은 건강보험에 주고, 나머지 1조원 중 절반 정도를 연구개발비, 정부화 사업 등에 쓰고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에 법적

으로 합당하게 쓰는 돈은 89억원 밖에 안 된다"면서 "이렇게 돈을 쓰면 돈을 더 걷자고 할 아무런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선 그동안 여러 차례 돈을 합당하지 않게 쓰는 부분은 제대로 예산사업을 해서 쓰라고 했는데, 정부 쪽에선 현재 왕에 걸고 있는 부분을 고치겠다는 소리는 지금 한 마디도 없다"면서 "건 반쪽짜리 계획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걷는 부분은 제대로 쓰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면서 "정부에서 3조원을 걷어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000원 인상안 자체에 대해선 "담배 가격을 올려 금연효과를 거두려면 담

배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가격 인상폭이 커야 된다.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으로 보면 현재 2500원짜리가 9000원 정도가 돼야 제대로 금연효과가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 2000원을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적절하나 않느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다"며 "금연효과가 생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는 점에선 너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놓고 얘기하자면 25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하는 것이니 대폭 인상도 이런 대폭 인상이 없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月 AMORE FALL EVENT

내게 필요한
바이오 제품은?

BIO ZONE SPECIAL PROMOTION

바이오제품 구매 고객께
슈퍼바이탈 5종 샘플키트를 증정합니다.
*한정수량



PROMOTION ITEM; Bia Essence, Brightgen Ampoule Essence, Bio Activator, Super Vital Cream, Ultimate Hydro Cream

AMORE **보스톤점**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9/1~9/30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러, 미장센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Seoul Soup in Seoul 서울설령탕 SEUL SOLONGTANG

서울 SEUL KOREAN · SUSHI · WINES

SUMMER SPECIAL 냉면개시!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계수교장모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츠: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Church for People of Good Christ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우스터 한국 학교

2014 가을학기 개강. 9월 6일!

우스터 한국 학교에서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기간: 9월 6일 - 12월 20일 (15주) 토요일 오전 9:30 - 12:00
장소: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우스터 한인 교회 내

수업료: 학기당 \$180 (교재비와 간식비 포함)
반편성: 기초유치반, 초급반, 중급반, 성인반
등록한 학생의 3-4살 동생을 위한 무료 유아반이 운영됩니다.

등록 문의: school@workmc.org
732-485-6989 <http://www.workmc.org>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삼경년을 관단기운으로 삼는

제실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회: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세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달 무료 집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회사 상호가 변
경되어도. 항상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KO / MÃO / HAND / 손 / MANUS / MAIN /

NETWORK HEALTH는 이제
TUFTS  Health Plan
NETWORK HEALTH
입니다.

고객을 향한 우리의 약속도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work-Health.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를 포함하여 고객님의 건강 계획 옵션에 관한 모든 것은 MAhealthconnector.org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비즈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올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패츠 선수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9월 7일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17주 간의 2014 NFL 정규 시즌을 시작한다.

덴버 브롱코스와 함께 AFC 최강팀으로 분류되는 패트리어츠는 올해도 수퍼볼을 노려볼 수 있는 우승 후보 중 하나다. 올해 패트리어츠가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화려한 선수들 외에도 패트리어츠 시즌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선수들이 있다. 이런 선수들을 살펴보자.

Dan Connolly(가드)

베테랑 오펜시브 라인맨 로건 맨킨스가 팀파베어로 이적하면서 입지가 불확실하던 댄 코넬리가 확실하게 선발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적어도 시즌 초에는 코넬리가 스타팅 가드로 출전할 것이다.

패트리어츠는 올해 초부터 오펜시브 라인에 꾸준히 투자를 했고, 드래프트 선발에서도 오펜시브 라인을 대거 기용했다. 이런 이유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코넬리가 패트리어츠를 떠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맨킨스가 먼저 떠나게 되면서 코넬리의 경험과 노련미가 중요해졌다.

코넬리는 지난 시즌 부진을 겪으며

상대 수비수에게 패스 러시를 자주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프리시즌에서는 한층 성장하여 평균 이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시즌 내내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넬리의 자리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만큼 코넬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Logan Ryan(코너백/세이프티)

로건 라이언은 지난해 성공적인 루키 시즌을 보냈다. 풋볼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과 움직임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라이언은 올해 프리시즌 내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리시즌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라이언은 리그 최하위 코너백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자이언츠전에서 세이프티로 출전했지만 번번히 상대 리시버를 놓쳤다.

프리시즌에서 고전했지만 여전히 라이언은 재능 있는 젊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언이 성공적인 루키 시즌에 이어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할지, 아니면 2년차 징크스로 주저앉을지는 아직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Tim Wright(타이트엔드)

정규시즌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두고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팀 라이트는 어찌면 팬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다. 베테랑

가드 맨킨스와 트레이드로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트의 존재 가치는 맨킨스보다 훨씬 빛날 수 있다. 패트리어츠 선수층에서 가장 얇은 타이트엔드 포지션을 맡고 있고, 큰 키를 이용해 레드존에서 효과적인 공격 활로를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에는 랍 그롱코스키라는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가 있지만 그롱코스키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나 그롱코스키가 부상을 당할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할 선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트의 영입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라이트는 프리시즌 막바지에 패트리어츠에 합류하여, 정규시즌 전까지 적응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나 패트리어츠에 훌륭히 적응한다면 무빙 타이트엔드로서 공격에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된 도미니크 이즐리는 패트리어츠가 원하는 패스 러시 스페셜리스트다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Dominique Easley(디펜시브 태클)

패트리어츠가 도미니크 이즐리를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즐리는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 몸상태가 완전하지도 않았다. 최근에는 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이즐리는 프리시즌 경기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큰 부상을 당한 전력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벨리칙 감독이 드래프

트 1순위에서 이즐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즐리의 폭발적인 패스 러시 능력 때문이다.

부상에서 회복한 루키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시즌 초반에는 이즐리의 출전 횟수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즐리가 성공적으로 프로 무대에 적응한다면 패트리어츠는 포스트시즌에서도 활용 가능한 훌륭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이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59

라운딩을 하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고 부피가 그리 큰것도 아니고 즙같은 것들이 흘러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과일들에 비하여 일단 가지고 다니기가 쉽다. 현대의 편리성도 좋지만 바나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자세히 알고 나면 새삼마켓에 가서 가장 쉽게 들어오고 값도 가장 저렴한 바나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상세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고,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 바나나 효능이라고 키워드를 치면 원하는 만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한다.

첫째,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다. 대략 보통 과일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높는데 이는 장시간 운동으로 소모된 칼로리를 공급하는데 안성맞춤이다. 단당류와 다당류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필요한 에너지와 장시간에 필요한 에너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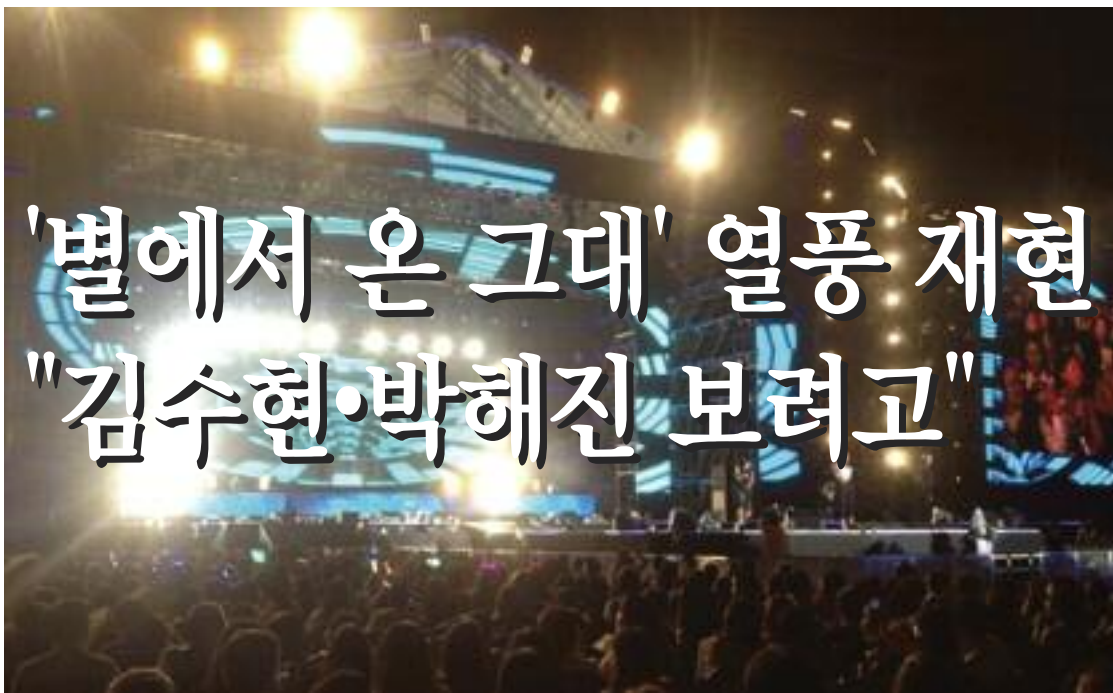
둘째, 섬유질이 풍부하다. 섬유질이 충분하다는 것은 곧 포만감과 아울러 소화에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과 칼륨을 들 수가 있다.

식품으로서의 바나나를 살펴보면 비단 골프라운딩 도중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로써도 강력 추천하고 싶다. 아침에 다른 과일이나 야채와 함께 같이 먹어도 좋고, 시리얼과 함께 먹어도 좋다. 점심에 먹고 싶다면 클램프와 더스프와 함께 먹어도 참 잘 어울린다. 꼭 식사때가 아니라도 간식으로 오고가며 먹기에 부담없다.

“바나나 하루 한 개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 라는 말도 있고 게다가 값도 가장 싼 과일이라고 하니 하루에 2개 쯤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스포츠들 중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음료수를 먹는 경우는 많지만 음식을 먹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 골프는 격하지는 않지만 장시간 해야 하는 운동이므로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따로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찻잔이 나는 시간을 이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원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에너지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있고, 둘째로는 과일과 같은 천연적인 것들이 있다. 사람마다 저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 필자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에 의하면 바나나를 강추 하고자 한다. 바나나는 특별히 따로 씻어야 될 필요도 없



'별에서 온 그대' 열풍 재현 "김수현·박해진 보려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국관광공사와 롯데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초청해 열린 '2014 패밀리콘서트-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열린 29일, 중국과 일본 등에서 한국을 찾은 1만 5000여명의 외국인들은 한류 스타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2시간 반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드라마 '별그대'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에는 주연배우 김수현과 박해진이 참석해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가수 윤하와 린 등도 '별그대' 드라마 주제곡을 직접 부르며 팬들에게 지

중국, 일본인 등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장대비 속 뜨거운 열기

난 드라마의 감동을 재현해 무대 분위기를 빛냈다.

콘서트 시작 전 한 두 방울 내리던 비가 차츰 굵은 빗방울로 변하자 관광객들은 주춤하며 사전에 준비한 붉은색 우의를 입고서 무대 앞에 선 한류 스타들을 시종일관 열렬히 응원했다.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단위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직접 무대에 나타나자 전부 일어나 환호하며 배우들을 카메라에 담는데 여념 없었다.

일부 관광객들은 한국 부채를 들고 "한국 좋아요", "김수현 최고" 등을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다.

야광 머리띠를 두른 여고생들은 이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려는 듯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보이며 셀카를 찍기도 했다.

박해진이 오픈카를 타고 등장해 무대에 올라서자 주변에서는 야광봉을 머리 위 아래로 흔들며 한류 스타를 반겼다.

박해진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팬

한류 붐 타고 기획된 외국인 전용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

미팅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며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관광객들 팔에 둘러져 있는 좌석번호를 추첨해서 해당 번호가 나온 사람을 직접 무대 위로 초청해 셀카를 찍기도 했다.

이에 지목되지 못한 관광객들은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박해진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표정이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김수현이 무대 위로 등장해 유창한 외국어로 팬들에게 인사를 하자 팬들도 인사말로 뜨겁게 화답하며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중국 절강성에서 왔다는 장문(35·여)씨는 "여행이 아니라 오직 김수현을 보러 한국을 찾았다"며 "별그대 드

라마는 한국에서 방송된 다음날 아침에 자막까지 다 준비돼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챙겨봤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우리 또래 중국 여성들은 김수현을 매우 좋아하고 중국에서도 유명하다"며 "평소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진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현장에서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롯데면세점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던 '패밀리 콘서트'를 관광공사가 후원해 외국인 전용 콘서트로 기획했다.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영어 동시 통역과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29일 오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서 한류 콘서트 '별에서 온 그대'에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인호 KBS 이사 의결 노조 "편향된 역사관, KBS에 부적절" 반발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최근 사퇴한 이길영 KBS 이사회 이사장 자리에 이인호(78)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정되자 KBS 안팎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인호 명예교수를 KBS 이사로 의결했다.

이에 KBS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시대 역행하는 이사장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이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이사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친일 반민족' 논란이 인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을 전한 KBS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역사관 논쟁을 부른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로 알려졌다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편찬운동을 벌였다"며 "이인호 이사장 절대 불가"고 주장했다.

한편 이인호 KBS 이사장 내정자는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최종 선임된다. 현재 공석인 KBS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뽑는데 이 교수가 유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에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이사로 의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도 같은 이유를 들어 인사에 반대했다. 새노조 관계자는 "공영방송 KBS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인식을 가진 인사를 이사로 추천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의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여권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의지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전규찬 대표)도 성명을 내고 "편향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힘 '여자 없는 남자들' 출간 동시 1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이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9년 만에 내놓은 단편집 '여자 없는 남자들'은 지난주 예약 판매만으로 10위까지 올랐다. 표제작 '여자 없는 남자들'을 포함해 '드라이브 마이카', '세에라자드', '에스터데이', '독립기관', '기노', '사랑하는 잠자' 등 총 7편이 실렸다.

9주 연속 정상을 이어오던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장편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하루키에 밀려 2위로 떨어졌다. 존 그린의 '잘못은 우리 밖에 있어',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도 한 계단씩 밀려나 각각 3위, 4위에 자리했다.

신장섭 교수의 '김우중과의 대화'가 8계단 상승해 7위를 차지했다. 대우해체 이후 처음으로 전하는 김우중 회장의 육성 증언을 담은 '김우중과의 대화'는 외환위기 당시의 분위기와 김 회장의 세계경영 노하



우, 상생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조언으로 출간과 동시에 화제를 모았다.

9월 첫째 주 베스트에는 김진국의 '멀티를 선물하는 남자'와 조해너 베스포드의 '비밀의 정원'이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멀티를 선물하는 남자'는 저자 김진국이 풍부한 경험과 오랜 속고를 통해 깨달은 성생활의 즐거움을 이 땅의 선남선녀들에게 전하고자 쓴 책으로 여성에게 오르가즘을 주는 방법 29가지가 담겼다.

'비밀의 정원'은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으로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인정받은 젊은 아티스트 조해너 베스포드의 이번 작품이 실렸다.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55,0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000 sf.
Many updates
좋은 주거 환경, near Train Station
이현주 401-935-3397



\$455,900
Tewksbury, MA
4 Beds, 3 Baths, 2714 sf.
깨끗하게 잘 관리된 집
넓은 공간, 좋은 가격
뉴스타부동산 781-259-4989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399,000
Newton, MA
2 beds, 2 baths, 1226 sf.
Perfect home for first time
home buyer
OT Kim 617-620-8242



\$529,900
Lexington, MA
2 Beds, 1 Baths, 816 sf.
Amazing opportunity to own
house in Lexington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콘도 Condominium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협회(NAR) / 2014년 4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
2014년 10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 2014년 10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Drop off Store



\$4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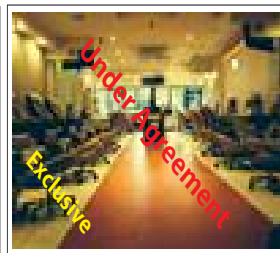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35 September 5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가족같은 분위기의 데리
알스 카페 (Al's Cafe)

업소탐방 253

알스 카페 (Al's Cafe)

112 State Street, Boston, MA 02109
617-720-5555
www.alscafes.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파이낸셜 디스트릭트(Financial District)에 위치한 알스 카페(Al's Cafe)는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간다.

비즈니스의 중심지면서 퀸시마켓 바로 근처에 위치한 이 델리 가게는 직장인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오후 내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매일 점심시간에만 천 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온다.

알스 카페의 자랑은 매일 아침 직접 구워내는 바게트 빵이다. 특히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가면 갓 구워진 따끈따끈한 바게트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알스 카페의 2호점, 3호점이 하버드 스퀘어와 사우스 스트리트에 있는데 모두 한 가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호점인 이 곳은 알란 코스텔로(Alan Costello) 사장이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두 군데는 코스텔로 사장의 삼촌과 사촌이 각각 맡아 운영한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이 가게는 유쾌하고 정겨운 이 가족 덕분에 한층 더 따뜻한 분위기를 풍긴다.

인근 어학원에 다니는 강영빈 학생(25)은 “바쁜

와중에도 주인 할머니께서 매번 ‘마이 허니(My Honey)’, 직원들은 ‘마이 프렌드(My Friend)’라고 불러주니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며 “맛도 단연 최고”인 알스 카페를 강력 추천했다.

코스텔로 사장은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두 가지를 자신 있게 선보였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카페 스페셜 샵(State Street Café Special Sub)과 치킨 샐러드 샵(Chicken Salad Sub)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메뉴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카페 스페셜 샵은 얇은 햄과 신선한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바질이 들어간 샌드위치로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오일이 곁들여 나온다. 치킨 샐러드 샵은 “시내 최고의 치킨 샐러드”라는 명성을 단 메뉴다. 치킨 텐더와 마요네즈, 각종 시즈닝이 함께 어우러져 담백한 맛을 낸다.

“신선한 재료와 높은 퀄리티의 음식을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코스텔로 사장의 말이 그대로 메뉴에 깃들여있는 듯하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닌 스톤 샌드위치는 \$6.50, 풀 바게트 사이즈 라지는 \$8.50이며 점심 특별메뉴를 주문하면 단 \$8에 원하는 종류의 작은 샌드위치와 칩 한 봉지, 음료를 구입할 수 있다.

종종 이곳에서 점심을 즐긴다는 리 엠(Lee Amme)은 “알스 카페는 회사 동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렴하고 맛있는 가게”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연다. 일요일은 휴무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회철학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회철학자정신건강협회(가)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맹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맹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백산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연합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톤 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누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트 사모교회	413-549-9200
유스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말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바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남궁연골프클럽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 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차/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던요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617-8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6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60-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학(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힐리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사정신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아시덴탈	617-273-2233
프로스펙트덴탈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현비철임플랜트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국세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티브(남동)김/남동생명	617-538-7851
이민항 보험	781-325-3406
조준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아시덴탈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드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중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손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한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시진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타디오	774-253-1800
생선가게	
매터팬시마켓	617-298-2260
메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토피시	617-282-2980
브룩턴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킴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스피시마켓	617-2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남정수김밥	781-272-3787
다빈	781-960-0171
다오라스시	508-587-3920
다이아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스시	781-648-8878
명동일본집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도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스시	617-731-1122
Mr. 스시 (Arlington)	781-643-4175
베를레행토고	617-337-3500
분춘	617-254-8888
분춘 허버드스퀘어	617-868-0982
북경반점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9/5
참스포드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738-2627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9/12
세탁소에서 프레스하실 분 구합니다. 드라이와 셔츠 각 1명 (N. Andover) T. 978-273-6000

9/26
뉴튼 네일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자격증 소지하신 분/취득하실 분 환영 T. 617-678-4780

8/29
체스넛힐 레드망고 주방 보조 하실 분 구합니다. T. 617-795-0376

8/29
렉싱턴 입주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T. 617-340-9624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8/22
Restaurant for Sale
Arlington Center on Massachusetts Ave.
T. 617-480-7090

8/29
우번 방렌트, 유틸리티 포함 \$500 T. 781-910-4433

4/25
N [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4/25
N [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6/13
N [매 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매매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치함. T. 901-267-2991

6/13
N [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6/13
N [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6/13
N [구인]
돌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WHAT MAKES CSI DIFFERENT?

- Affordable
- Opportunity for CPT authorization through externships
- Multiple programs and class schedules
- Official summer break with English programs
-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Assistance with changing visa status, transferring from another school, and applying from abroad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Education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Illinois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is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cost of student life who completed the program,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us/faq>. Program offerings vary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8/1/14.

마담 뽕덕 정우성 이숨, 인터뷰 중 기습 키스?

(서울=뉴스1스포츠) 이한솔 기자 = 마담 뽕덕 정우성 이숨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영화 '마담 뽕덕' 공식 페이스북에는 "말하는 조각, 정조각의 원근법 무시 셀카 & 인터뷰 중 정우성에게 기습키스(?) 날리는 매력녀 이숨!"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이숨은 정우성과 키스를 나누고 있는 포스터를 배경으로 입술을 내밀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는 마치 실제로 키스를 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켜 눈길을 끈다. 정우성은 옆

에서 밝은 미소로 웃고 있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마담 뽕덕 정우성 이숨, 진짜 키스인 줄 알았네", "마담 뽕덕 정우성 이숨, 착시 효과 대단하네", "마담 뽕덕 정우성 이숨,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담 뽕덕'은 지방 소도시 문화 센터의 문학 강사로 내려온 교수 학규와 고여 있는 일상에 신물이 난 젊은 여인 덕이의 견집을 수 없는 사랑과 이로 인한 비극을 그린 영화다. 오는 10월 개봉.



박신혜 '피노키오' 출연 확정 거짓말하면 딸꾹질하는 기자 역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배우 박신혜가 SBS 드라마 '피노키오'에 출연한다. 박신혜의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4일 '배우 박신혜가 SBS 드라마 '피노키오'의 여주인공 최인하 역으로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신혜가 맡은 최인하 역은 사회부 수습기자로,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는 피노키오 증후군이 있는 캐릭터

다. 박신혜 측은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인하'의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을 닮고 싶어 '피노키오'에 더욱 끌렸다"며 '피노키오' 출연을 확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피노키오'는 인기리에 종영된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박해련 작가와 조수원 PD의 재회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로 치열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20대 사회부 수습기자들의 성장기를 다룬다. '피노키오'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후속으로 11월 방송 예정이다. 박신혜 '피노키오'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신혜 피노키오 확정, 재밌겠다", "박신혜 피노키오 확정, 연기를 잘하니깐 일단 호감", "박신혜 피노키오 확정, 내용 신선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명량' 36일만에 1700만 관객 돌파! 韓영화 역사 썼다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명량'이 한국 영화 최초로 1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36일 만에 이룬 성과다.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명량'은 3일 오전(배급사 기준) 누적 관객 수 1700만 명을 돌파했다. '명량'은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68만 명), 역대 최고 평일 스코어(98만 명), 역대 최고 일일 스코어(125만 명), 역대 최단 1000만 돌파(12일) 등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 지난달 16일 '아바타'(1362만 명)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명량'은 개봉 21일차인 19일 국내 개봉작 최초로 15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달 24일 개봉 26일 만에 1600만 고지에 오르는 대업을 달성했다. CJ E&M은 '명량' 종영 수순을 앞둔 16일부터 극장을 찾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공부방 어린이,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영회를 가진다. CJ E&M은 200회 이상 무료 상영을 실시해 10만 명 가량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다.



'해적' 700만 돌파 '땡큐 이벤트' 공약 실행, 맥주 증정에 허그까지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석훈 감독, 이하 '해적')의 주연배우 김남길과 손예진이 '700만 공약'을 지킨다. '해적'의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흥행 땡큐 이벤트'를 열어 배우들이 관객과의 공약을 실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앞서 '해적'의 김남길은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면 팬 70명과 백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손예진은 관객 70명과 맥주를 마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에 진행되는 '해적'의 땡큐 이벤트에는 이석훈 감독, 김남길, 손예진을 비롯해 조연 배우들까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벤트에서는 허그 이벤트와 맥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불어 배우들은 영화 흥행에 대한 소감과 함께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해적'의 흥행 땡큐 이벤트는 3일 오후 7시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을 받아 국새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의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달 6일 개봉한 이래 70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꾸준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해적 땡큐이벤트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적, 땡큐이벤트 기대된다", "해적, 결국 공약을 지키게 됐네", "해적, 땡큐이벤트, 완전 쿨하게 공약 지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8월 25일 ~ 8월 31일



1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31.6%



2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4.1%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3.2%

- 4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8.6%
- 5 KBS1 KBS9시뉴스 16.9%
- 6 MBC 주말특별기획(마마) 15.3%
- 7 KBS2 개그콘서트 13.7%
- 7 MBC 일일특별기획(엄마의정원) 13.7%
- 9 MBC 일밤(아빠어디가, 리얼임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 13.4%
- 10 SBS 정글의법칙(인도양) 13.2%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예뻐졌다 박보람
- 02 공허해 WINNER
- 03 A Real Man 스윙스,에일리
- 04 I Swear 씨스타
- 05 어려운 여자 장범준
- 06 Touch My Body 씨스타
- 07 한여름밤의 꿈 San E
- 08 HER 블락비
- 09 Body Language San E
- 10 Darling 걸스데이

숫자 퍼즐 (Sudoku)

	8	4	1					
						2	4	9
			6	3			5	
			7	9			3	
2	6						9	7
	9			6	5			
	5			1	3			
7	1	9						
					6	1	8	

9월 7일 - 9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 운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기가 생각하세요. 살다보면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지금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잃느냐 얻느냐는 자신의 머리와 노력이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애정: 내게 돌아오는 이 말이 내가 던진 어떤 것 때문이라 생각하면 쓸어오던 오해나 원망이 풀릴 길이 열릴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

토끼띠 | 전화위복이 될

● 운수: 냉정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시기를 잘 잡으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현실에 만족하고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 계획은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어째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원망부터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되나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말띠 |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어야

● 운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금전: 금전이 생김다 하여 엉뚱한 일에 과도한 욕심이 부리면 재물이 도로 사라지게 되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 애정: 자식에게 험하게 하면 말년이 서러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만으로 대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

닭띠 |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 운수: 개업을 시도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서류를 잘 챙기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이른 때이니 좀 더 기다리도록 하세요. 금전이 생기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말 한 마디에 쉽게 속상해 하고 말 한 마디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2일 길일, 8, 10일 주의.

소띠 | 서로간의 대화가 통하니

● 운수: 직장인인 경우 뒷사람의 도움으로 승진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시험이나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일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확장하고 넓혀가는 즐거움이 있으니 이사를 해도 좋겠습니다. 매매도 이익이 따라주고 쉽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간의 대화가 통하니 행복해집니다. 활기가 있고 의욕적인 생활이 전개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1, 13일 길일, 9, 12일 주의.

용띠 |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 운수: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투자할 분야에 대한 좋은 어드바이스도 받게 됩니다. ● 금전: 성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 생각지 못한 커다란 이익을 얻게됩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주입니다. ● 애정: 미뤄오던 이성문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애정의 주기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1일 길일, 12, 13일 주의.

양띠 | 둘 다 가질 수는 없으니

● 운수: 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동업과 같은 것은 자칫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 금전: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 애정: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길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길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3일 길일, 10, 12일 주의.

개띠 | 내 편이 될 수 있는

● 운수: 모든 것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경우에 맞게 일을 처리하면 모두가 잘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에 이익이 있으니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 사업의 계획을 바로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세요. ● 애정: 가까운 사람이 다리가 되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주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2일 길일, 7, 9일 주의.

범띠 | 자신의 틀을 버리고

● 운수: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어줍니다. ● 애정: 신뢰감은 자기의 틀 속에 상대를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틀을 버리고 상대의 마음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

뱀띠 | 즐거움이 함께 하는

● 운수: 다가오는 미래가 밝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직업을 바꾸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금전: 오랜 기간 기다리고 원하던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즐거움이 함께 하는 주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애정이 듬뿍 담긴 말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

원숭이띠 |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 운수: 소송문제나 사업상의 경쟁이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 금전: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문서관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 애정: 남의 말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살피는 사려 깊음이 있다면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1, 12일 길일, 7, 10일 주의.

돼지띠 |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 운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주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주가 될 것입니다. ● 금전: 확장을 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매매도 빠르게 성사되고 생각보다 큰 이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교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도록 하세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3일 길일, 7, 10일 주의.

서태지 10월 18일 컴백 공연 5년 만에 공식 활동 재개

(서울=뉴스1스포츠)이한솔 기자 = 가수 서태지가 컴백 공연을 개최한다.

서태지는 오는 10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9집 활동의 서막이 될 컴백 공연 '크리스탈로윈(Christmalowin)'을 연다. 이는 지난 2009년 발매한 8집 앨범 '서태지 에잇스 아토크스(Seotaiji 8th Atomos)' 이후 5년 만의 컴백이자 첫 공식 활동이다.

공연 타이틀인 '크리스탈로윈'은 크리스마스 와 할로윈의 합성어로 새로운 음악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항상 최고 수준의 공연을 만들어왔던 서태지였던만큼 그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축제에서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를 공개할 것인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서태지의 9집 정규앨범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로 서태지는 신곡 외에도 데뷔 22주년을 맞아 '하여가', '컴백홈(COME BACK HOME)', '교실이데아', '너에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태지는 '크리스탈로윈'을 위해 JBL 최상위 기종인 VTX스피커를 주경기장에 설치한다. 이 기종은 록밴드 메탈리카가 월드투어를 할 때 사

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연을 위해 스피커 디자이너인 폴 바흐만이 방한해 직접 공연 음향 디자인을 총 점검할 예정이다.

서태지 10월 18일 컴백 공연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태지 10월 18일 컴백공연, 나도 꼭 가야지", "서태지 10월 18일 컴백공연, 기대된다", "서태지 10월 18일 컴백공연, 드디어 컴백하는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업데이트 상황은 서태지 공식 홈페이지 서태지닷컴과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티켓 예매는 오는 3일 저녁 8시부터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이효리 “공개 연애 무조건 반대, 좋을 게 없다”

(서울=뉴스1)온라인팀 기자 = 이효리가 공개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이효리는 2일 방송된 SBS '매직아이'에서 "공개연애는 무조건 반대다. 난 이상순과 공개연애를 한 게 아니라 (사진이 찍혀) 당한 것이다. 공개 연애를 왜 하나? 해서 좋을 게 없다"고 밝혔다.

존박 역시 "공개 연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도 안 한다. 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매직아이' 공개 연애 반대를 본 누리꾼들은 "매직아이, 공인이면 피곤할 듯", "매직아이, 공개

연애 원하는 연예인도 드물겠지", "매직아이, 레이디제인은 쌓인 게 많았나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 생애 봄날' 소녀시대 수영 지상파 첫 주연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최수영(소녀시대 수영)이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최수영은 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MBC 상암 신사옥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새 수목드라마 '내 생애 봄날'(극본 박지숙/연출 이재동) 제작발표회에서 "지상파 주연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담이 컸는데, 감우성 선배가 첫 만남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부담을 내려놓고 의지하면서 첫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상대역 감우성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굉장히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마음도 편했다. 첫 방송 후에도 부담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캐릭터에 빠져서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극중 최수영은 자신에게 심장을 준 여인의 남편 강동하(감우성 분)에게 이끌리는 이봄이 역을 맡았다. 심장 이식 후 새로 태어난 봄이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고 있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치열

하게 살고 있는 임상영양사다.

'내 생애 봄날'은 시한부 인생을 살다 장기 이식으로 새 심장을 얻은 여인이, 우연히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한 여인의 가족들을 만나 사랑하게 되는 휴먼 멜로 드라마로 감우성, 최수영, 이준혁, 장신영, 심혜진, 권해효, 이기영, 현승민, 김경우, 강부자 등이 출연한다. 오는 10월 밤 10시 첫 방송.



고은비 사망.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에 마련



(서울=뉴스1)온라인팀 기자 =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故 은비(본명 고은비)의 빈소가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새벽 대구 스케줄 소화 후 자신들이 탄 차량이 서울로 이동하던 중, 새벽 1시 30분께 수원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가 숨졌고, 리세와 소정이가 중상을 입었다.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시작부터 마감까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11)>

흉노의 기원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나라때 흉노제국 영역

흉노 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흉노는 자신만의 문자가 없었으므로 자기 조상과 민족의 근원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고 구전으로 전하여지는 얘기와 중국인, 유럽 사람들이 기술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흉노를 야만족으로 폄하하는 편견이 앞서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훈’ 이었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들을 비하하려고 ‘훈’ 대신에 오랑캐 흉(匈)을 쓰고 노비 노(奴)자를 붙여 흉노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흉노로 불려오고 있는 것이다. ‘훈’ 은 흉노말로 사람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으니 은(殷)나라 때는 귀방(鬼方), 주(周)나라 때는 험윤(獫狁), 전국시대 때는 견융(犬戎), 그리고 한나라 때는 흉노로 불렸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귀신 같은 놈들이 사는 나라, 승냥이 같은 오랑캐, 개 같은 오랑캐, 노예 같은 오랑캐 등으로 모두 비하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속어로 불려오고 있었다.

왜 중국인들은 흉노를 미워했을까? 워낙 흉노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원한이 사무친 것이다.

힘으로는 당할 수 없으니 문자로 보복한 것이다. 흉노에게 당해서 주나라가 망했고,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흉노를 방어하려다 망했다. 한고조 유방은 흉노의 선우 목특과 싸우다 백등산에서 포위당하고는 매년 조공 바칠 것을 약속하고 풀려났다.

흉노에게 워낙 심하게 당해서 한고조는 후손들에게 흉노와 싸우지 말라는 유언까지 하게 되었다. 흉노는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 북쪽 변경과 황하 상류 지역인 1)오르도스 지역

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중국 역사에는 BC 8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흉노는 자신만의 문자가 없어 기록으로 조상이나 민족의 근원을 남기지 못했지만 북위서(北魏書)에 흉노 건국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흉노 선우에게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선우는 두 딸이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 천신의 아내로 바칠 결심을 하였다. 4년 동안 천신에게 두 딸을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늑대 한 마리가 밤낮으로 두 딸을 지키고 있었다. 선우는 늑대가 천신이라고 생각해 그에게 두 딸을 주었고 얼마 후 후손을 낳아 흉노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럿이 있는데 늑대가 등장하는 점에서 모두 비슷하다. 흉노의 기원에 대해 제일 신빙도가 높은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기록된 흉노 열전이라고 할 것이다. 중요한 내용만 간추리면,

“흉노의 선조는 하후씨(夏后氏)의 후예이니 순유(淳維)라고도 한다. 산융(山戎), 험윤(獫狁) 훈족(薰粥)이 북변에 살면서 기르는 가축을 따라 옮겨 다녔다. 그 중 가장 많이 기르는 가축은 말, 소, 양인데 수초(水草)를 따라 옮겨 다녀서 성곽이나 일정한 거처가 없었고 농사를 짓는 일도 없었다.



오르도스 시가지의 현재 모습

문서가 없고 말로 약속하였다.

어린 아이도 능히 양을 타고 활을 당겨 새와 쥐를 쏘 줄 안다. 조금 자라면 여우와 토끼를 쫓아 식용으로 한다. 남자는 활을 당길 힘만 있으면 갑주를 입고 기병이 된다. 그들의 풍속은 평시에는 가축을 따라다니며 새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으며 전쟁이 나면 전투법과 공격법을 익혀 쳐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천성이다. 먼 거리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화살이고 접근전에는 칼과 짧은 창을 사용한다.

유리하면 전진하고 불리하면 물러간다. 도망해 달아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군왕(君王) 이하 다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피혁을 입으며 가죽 옷을 덮어 입는다.

아비가 죽으면 그의 후모(後母)를 아내로 삼으며 형제가 죽으면 다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다.”

흉노는 자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뒤에 남겨진 미망인과 딸린 자식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형사 취수 풍속이 생겼다고 하지만, 실은 과부가 된 형수가 재가를 하게 되면 재산을 나눠가기 때문에 형수를 아내로 삼게 된 것이라고 한다.

징기스칸은 아버지를 졸지에 잃었는데 삼촌들이 징기스칸의 어머니를 취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

었다. 삼촌들이 두고두고 세인들의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흉노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BC 8세기 경 주나라 때 부터였다. 당시 주나라는 유왕(幽王) 치세 때로 절세미인 포사가 왕후였는데 웃음이 없었다. 유왕은 포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했다. 그는 거짓 봉화를 울려 제후들을 여산에 모았다. 그들은 봉화가 올라간 것이 적국의 침범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포사를 웃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모두 자기 영지로 돌아갔다. 포사가 이를 보고 비로소 웃음을 웃게 되었지만 주나라의 사직이 여기서 끝을 맺게 될 줄을 어이 알았겠는가.

BC 771년에 유왕으로부터 내침을 받은 신후(申后) 부자와 견융(犬戎: 흉노)이 대거 침공하여 유왕은 죽임을 당하였다. 유왕이 봉화를 울렸으나 제후들은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다. 주나라는 멸망하고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흉노는 중국의 연, 위, 조, 진나라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네 나라는 북쪽에 장성을 쌓아 흉노를 방어했지만 흉노와의 대결에서 국력의 소모를 감당할 수 없어 조나라의 경우는 나라까지 진나라에 잃게 되었고, 연, 위 두 나라 역시 조나라의 뒤를 이어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의 뒷면에는 흉노가 다른 여러 나라의 국력을 소모시킨 공로(?)가 있었던 것이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에 흉노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몽염 장군에게 30만 명의 대병을 주어 황하 상류 오르도스 지역에 있던 흉노를 몰아내고 그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아 흉노를 방비하였지만 국력의 소모가 막대하여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진시황 역시 흉노를 관리하다 나라를 잃게 되었다. 중국 역대 왕들에게는 흉노와 황하의 범람을 잘 다스려야만 명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해

1)오르도스 (鄂尔多斯: Ordos or Erdos)

내몽고 자치구 중남부에 있는 고원지역으로 북쪽과 서쪽은 황하(黃河) 남쪽은 만리장성이 둘러싸고 있다. 진시황 때 이 곳에 살고 있던 흉노족을 쫓아냈지만 목특 선우 때 다시 흉노의 땅이 되었다.

오르도스는 몽골말로 궁의 수호막이라는 뜻이다. 징기스칸의 묘를 발견했다고 하나 아직 진위가 불확실하다. 예전에 목축업으로 살던 빈촌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제일의 부촌이 되었다. 주 산업은 캐시미어 모직과 석탄 채굴인데 8만 7천 km² 오르도스 지역의 70%에 1조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흉노-한 전적지



오르도스 과거(위)와 현재(아래) 모습

“올 여름, 세상을 뒤집는 통쾌함을 느껴라”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감독의 통쾌한 액션 활극

군도 KUNDO

하정우 강동원 이성민 조진웅 마동석 윤지혜
SHOWBOX MEDIAPLEX PRESENTS |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절찬상영중!

SHOWCASE CINEMA DE LUX REVERE 565 SQUIRE RD, REVERE, MA 02151 (800) 315-4000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WWW.KUNDOMOVIE.COM f HITKMOVIE

남녀노소 시원하게 웃겨줄 최강 도둑들의 액션 어드벤처!

대한민국을 배꼽잡게 만든 그 영화

★★★★★
2주 연속 주간 박스 오피스 1위
예매율 1위 (9월 첫째주 기준)

해적 PIRATES

김남길 손예진 유해진 설리
PIRATESMOVIEUS.COM f HITKMOVIE

2014.09.12

신영의 **세상 스케치**

46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맑고 밝은 웃음은 행복을 부르고...

우리 선조들은 오랜 삶의 경험에서 얻고 빚어낸 말 속에 담긴 마음과 행동을 표현한 것이 속담은 아니었을까. 그렇다, 웃음에 대한 얘기들도 수없이 많지 않던. 웃으면 복이 온다든가 또 웃는 얼굴에 짐 못 뺀다는 이 루 글로 다 적지 못할 만큼의 속담들이 참으로 많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의 맑고 밝은 표정과 웃음이 얼마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늘어놓지 않더라도 내 가족 안에서 충분히 느끼는 일이지만,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의 일상에서도 때로는 그 웃음으로 기분 좋고 또 그 표정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던가.

사람마다의 성격이나 소향이 다들 다를 테지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아주 오래 남는다. 그것은 그 사람과 헤어지면 잊히는 잠깐의 만남일지 모르지만, 어떤 관계나 일에서 그 사람과 다시 해후할 수 있을 때 잊었던 그 사람의 '첫인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을 딱딱하고 목석 같은 느낌으로 남길 이유가 있을까. 스치는 자리에서라도 자연스럽게 환한 웃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말

간 미소 정도는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때로는 타고난 환한 웃음의 소유자들은 하늘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이리라.

어느 모임에서든 자신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자리에서는 저절로 얼굴이 굳어져 무표정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자신과 맞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그런 무표정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기에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삶의 손실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일이다. 웃음의 높낮이는 자신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표정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하기에 마음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세상 나이 사십(지천명)이 되면 자신 얼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요즘에야 사십이면 아직 젊은 측에 들어가니 적어도 오십 정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환한 표정을 전달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득이 되지 못하고 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다. 차라리 먹은 마음이 따로 있다면 자신이 정한 식대로 가는 일일 테지만, 그런 먹은 마음도 없이 그렇게 자신을 밖으로 표현도 아닌 표출해낸 굳은 표정은 보는 이들마저 안타까울 뿐이다.

오래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는 자리에서 언제나처럼 입을 꼭 다물고 오랜 시간도 아닌 단 3분이면 풀어진 화난 표정으로 상대방과 마주하는 이가 있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가까운 친구와 만나면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의 그 굳은 표정의 얘기를 하게 된다. 요즘도 가끔 이와 비슷한 표정의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을 왜 저토록 작게 만드느라 싫어서 말이다.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그나마 얼굴이라도 예쁘면 용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얼굴로 표정까지 저렇게 하면 어찌지 하고 혼잣말처럼 던지며 지낸다.

옛그제는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로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 예술을 좋아하고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 좋은 일이 생겼다면 축하해달라고 말이다. 한국을 방문하면

언제나처럼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는 친구다. 얼굴도 예쁘지만 하는 짓도 예뻐 여러 친구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다. 그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꿈이 생기고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렇다, 설령 그 마음의 꿈과 희망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만으로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토록 환해질 수 있고 그 환한 마음이 환한 웃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리라.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생각처럼 마음처럼 잘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더욱이 그렇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하지 않던가. 그것은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마음이 맑고 밝은데 어찌 환한 웃음이 나오지 않겠으며 마음이 무거운데 어찌 맑고 밝은 표정이 나올 수 있겠는가. 물론,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어찌 그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줄까. 그러니 환한 웃음을 짓는 연습이라도 하다 보면 마음도 더 맑아지고 밝아져 어느 날 저절로 환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한담객설閑談客說:
중년유감中年有感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가을이 문턱 앞에 섰다. 지난 겨울은 푸근했기에 올여름은 무지 더울 줄 알았다. 참 좋았던 여름이 간다. 이 가을도 참 좋은 계절이기를 은근히 바란다. 가을은 중년의 계절이다.

우리 교회 이낙목사님이 불평(?)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대표기도를 해야 한단다. 연장자이고, 나이가 들었다는 걸 실감하는 터다. 그럴 수 있을거라 고개를 주억였다. 나는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님이 나보다 젊었을 적에 나이들어 가는 걸 알겠더라. 이낙목사님은 나보다 연세가 높으니, 심히 흡족하다. 그 역시 꽃다운 중년이라 우길지도 모른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서유석이 불렀다.

교회에서 방문한 예배객과의 대화 한 토막이다. 평신도인 내게 하는 질문과 대답이다.

저~어, 목사님
아뇨, 전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아, 장로님!
아뇨, 전 장로님이 아닙니다.
이순간, 대답에 한마디 덧붙이려면, 손님은 이미 뒤돌아선다. 손님이 머쓱해졌다는 뜻이다. 혹시 실례하지 않았나 민망해 하면서 말이다. 완관 금도끼는도끼 전래동화 되었다. 나 역시 터져나오는 웃음은 쓰다. 오히려 내가 대단히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나이들어 보이나? 내가 준비한 대답은 '당황하셨죠?'

오랜만에 만난 여집사님이 내게 인사했다. '많이 늙으셨네요.' 출렁!, 간헐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힘이 빠져 나가는 무릎을 가까스로 추스렸다. 정신이 혼미해진 건 당연하다. 그대로 물러설 내가 아니다. 짐짓 정색하며 던진 대답이다. '그런 인사는 젊은 오빠한테 섭섭하제.' 그나마 내게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할 적에, 손자냐고 묻는 인사보다는 백번 낫다. 인사 고마웠고 반가웠

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가 늘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지혜는 커녕, 잔머리만 늘어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이제는 잔머리 굴린 기운도 없다. 잔머리도 두뇌회전이 웬만큼 받쳐줘야 한다. 내 머리는 공회전에, 허영계 비어만 가는 듯 싶다는 말이다. 이런걸 '에어 브레인' 이라 부르는건 아닐테니 그나마 위안이다. 나이와 성숙도成熟度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닌 모양인데, 갱년기병病이라면 어쩔 수 없다.

한국에선 중년 아저씨로 살아가는 게 무지 피곤하다 했다. 혹시 젊은 여성에게 무심코 던진 눈길이 혹여나 불온한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전철에선 눈을 돌 곳이 적당하지 않은데, 그건 문제다. 그저 읽은 거리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게 상책인가. 늦은 밤길에 젊은 여자아이를 뒤따르는 상황이면, 아예 걸음을 멈추고 잠시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앞서

가는 여자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일 것이고 자기방어일게다. 땀을 병에 걸리지 않았고, 못된 아저씨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니 말이다.

여자 아이들만 밤거리를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중년들도 밤거리를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젊은 여자 아이들 만나지 않게 말이다. 참 고달픈 중년이다. 하지만 우리 교회 상록기도회 어른들 앞에 서면, 난 한참 '영계' 이고, 이팔 청춘이며, 꿈 많고 순전한 청년이다. 걸음마는 커녕 아직 구르지도 못하고, 기저귀도 못 떼었다면 너무 어린 건가. 언제 기저귀떼고 혼자 걸을 수 있을까.

힘내시게 피곤한 중년. 아직 길길이 구만리 아니던가. 배우라 했고, 씬을 얻는다 했는데, 평신도신학원(BNI)이 생긴다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씬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29)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유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KCSB 2nd Annual Exhibition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2회 협회전



Wonjae Cha, Miae Cho, Eunice Choi,
Ji Young Hwang, Dallae Kang, Hee Jung Kim,
Sawool Kim, Eunjoo Lee, Hanka Lee,
Jaeok Lee, Ji In Lee, Yong Suk Lee,
Sung Sook Na, Young Shin, Unju Sim,
Soo Rye Yoo, Chang Woo Yoon, Younga Kim
Invited Artist: Peter Haines

2014 September 20th through October 5th
Tuesday to Friday and Sunday: 12 p.m. to 4 p.m.
Saturday: 10 a.m. to 4 p.m.
Reception: September 20th,
Saturday 2:00-4:00 p.m.

Sponsored by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and Lexington Cultural Council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Phone: (781) 367-5993 email: info@kcsBoston.org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7 무예도보통지와 조선 제일의 무예가 백동수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백동수는 조선에서 제일가는 전설적인 무예가이다. 백동수 또한, 함께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박제가나 이덕무와 같이 서얼이다. 백동수의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얼마나 적자를 중시하고 서자를 차별했는지 그 사회상을 볼 수 있다. 한 번 서자는 영원한 서얼이었다. 그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후손들이 받아야 했던 냉대와 멸시 그리고 차별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박제가는 어머니가 첩이였기에 자신이 서자였다. 이덕무는 아버지 이성호가 할아버지 이필익의 서자인 관계로 서얼이었다. 물론 그의 10대조인 정종의 아들 무림군이 후궁에서 출생한 서자였지만 왕자인 관계로 그의 적자들은 서얼 신분은 아니었다. 이덕무는 아버지가 서자인 관계로 서얼이 된 것이다. 백동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신임사화(71)에 연루되어 죽은 백시구가 그의 증조부이다. 그의 조부는 백상화이고, 아버지는 백사괘이다. 조부인 백상화가 서자인 관계로 백동수는 신분상 서얼에 속했다. 그리고 손위 누이가 이덕무에게 출가하였기에 이덕무의 처남이다.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함에 있어서 백동수는

실기(實技)를 담당하였다. 그는 청년시절 학문을 멀리하고 무예에만 심취하였기에 주위 사람들이 심히 그를 우러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주위에는 박지원, 이덕무와 같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며 중년에는 학문에 뜻을 두어 그의 친구들과 당대의 대학자들로 부터 '무(武)에서 문(文)을 일구었다' 는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는 1743년에 태어나서 1816년에 졸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제일가는 검객 김광택(72)의 제자로 조선검법을 전수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김광택을 '검선(劍仙)' 이라고 불렀다. 김광택은 김체건의 아들이며, 김체건은 우리나라 무예가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백동수는 영조 47년(1771년)에 무과에 급제하였지만 서얼이라는 신분상의 한계와 그간 적체되어온 만과(萬科73)로 인하여 관직에 임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에 가서 10여년간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오랜 세월을 산골에서 보내다가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장용영을 설치할 때 창검의 일인자로서 궁궐로 돌아 왔고, 그 후 집춘영, 어영청, 장용영 조관(哨官)을 지내고 1789년에 정조의 명에 따라 박제가, 이덕무와 함께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간행하였다. 그 후 백동수는 여러 무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단 세상을 노니는 사람' (청정관전서 -

이덕무 저)같이 살다가 1816년 74세를 일기로 운명하였다. 그의 전설적인 무예의 신기를 다룬 책과 드라마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후예들을 들뜨게 만들고 무도수련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71) 신임사화는 경종 때 신축년(1721년, 경종 즉위년)에서 이듬해 임인년(1722년)에 걸쳐 일어났던 소론이 노론들을 처형한 옥사 사건이다. 경종이 후사가 없는 관계로 이복 동생 연잉군(후에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로 노론과 소론의 정쟁으로, 1721년에 일어난 신축옥사는 숙종의 뒤를 이은 경종이 아들이 없어서 노론들이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고자 주장하여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경종이 병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였다. 경종은 허락하였지만 소론의 조태구 등이 부당하다고 상소하여 취소되었다. 소론들은 이 발상을 불충으로 몰았고, 목효룡의 고변사건으로 대리청정을 주장한 4대신인 이이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등이 사형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임인년 3월에 목효룡, 김일경 등이 임금을 시해하려는 역모 사건이 있다고 고하면서 국청이 열렸고, 정인중, 김홍택, 이천기, 백방, 심상길, 이희지, 김성행 등 60여명의 노론들이 잡혀들어 왔다. 심

문은 물론 소론이 담당하였고 잡혀온 노론의 대부분은 죽임을 면치 못했고, 이 사건에서 백동수의 증조부 백시구가 사형 당했다. 삼대구족을 멸한다는 역모사건에서 살아난 그의 조부 백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자'였기에 화를 면했지 않았을까!

72) 김광택(金光澤, 생몰년 미상)은 숙종 때의 무인인 김체건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종의 신분이었으며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관비로 되어 있다. 그는 영조가 임금에 되기 전인 연잉군 때 영조를 시종했으며, 그 후에는 흥봉한(혜경궁 홍씨의 부친, 정조의 외조부)의 사저에서 시종했다. 그의 정식 이름은 국표(國標)였고(아명은 노미(老味), 광택이란 이름은 영조가 하사한 것이다. 그는 부친 김체건으로부터 무예와 검법을 전수받았다. 무예 뿐만 아니라 문장과 서예도 함께 전수받았다. 영조가 그에게 글을 쓰게 한 기록으로 볼 때 그의 서예 실력 또한 무예 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 김체건 역시 당대의 문장가요 서예가였다. 그리고 김체건은 우리나라 무예가의 시조로 꼽힌다. 백동수는 조선 제일의 검객 김광택으로부터 조선검법을 전수받았다. 김광택은 영조 초기 그의 신기의 검술을 백동수에게만 전하고 홀연히 사라져서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

73) 만과는 과거시험, 특히 무과를 자주 시행하여 많은 합격자를 양산함에 따라 관직이 부족하여 합격한 자들이 임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투쟁

십 년 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10일 즈음 HBO에서 내보낸 영화가 하나 있다. Iron Jawed Angels. 그냥 생각 없이 번역하면 철 턱의 천사들이라는 기괴한 제목이 나오고, 조금 공들여 번역하면 단호한 천사들이라는 아리송한 제목이 나오기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천사들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1910년 무렵에 시작해서 1920년에 끝나는 이 영화는 미국 여성 참정권 투쟁의 마지막 십 년을 그리고 있다.

영화 속에는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되는 우드로 윌슨, 여성 참정권 운동의 대모로 전미 여성 참정권 협회 (National American Women Suffrage Association)을 이끌었던 캐리 챔프먼 캣츠, 캣츠보다 급진적인 성향의 참정권 운동가이자 여권 운동가로 전미 여성당 (National Women's Party)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던 엘리스 폴이 등장한다. 그리고 당시 각종 사회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헬렌 켈러도 잠시나마 스쳐 간다. 영화화를 위한 과장과 첨삭은 있어도, 역사적인 '사실'에 상당 부분 기대어 만든 픽션 영화기 때문이다.

가령 1913년의 참정권 행진이라든가, 세계 제 1차 대전의 발발과 윌슨의 재선, 캠페인 중에 그리고 미국의 세계 대전 참전 결정과 같은 사건들은,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사건인 것 같아도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참정권 운동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팩트들이다.

그 중 하나가 백악관 앞 반전시위다. 명분 없이 제국 주의 열강들의 총독에 의해 발발한 전쟁에 대한 표면상 중립을 표방했던 미국이 연합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정부는 '자유를 위한 전쟁'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과 같은 선전을 통해 참전 명분을 정당화하려 했다. 엘리스 폴을 위시한 여성 참정권 운동가 그룹의 일부는 그 선전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공박하고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가령, 윌슨이 참전 요구 연설 (1917년 4월 2일)에서 사용한 문장, "미국은 우리가 항상 가슴에 지녀왔던 그 가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부 하에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We shall fight for the things which we have always carried nearest our hearts—FOR DEMOCRACY. For the right of those who submitted to authority to have a voice in their government April 2nd 1917") 을 그대로 인용한 후, 그녀들은 다른 피

켓에서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대통령님, 당신은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건가요? ("Mr. President, What Will You Do for Women Suffrage?")

또 다른 피켓에는 "대통령님, 당신은 자유가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Mr. President You Say Liberty is the Fundamental Demand of the Human Spirit) 그리고 이어지는 피켓에는 (그렇다면) "대통령님, 여성들은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Mr. President, How Long Must Women Wait for Liberty?"

이렇듯 정권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메시지가 쓰여진 피켓을 들고 백악관 정문에서 시위하는 지키는 여성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이 시위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체포, 투옥하기 시작했다. 영화는 이에 대한 반발과 공분이 더 많은 여성들을 피켓 시위에 동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에는 피켓 시위 말고도 교과서가 거의 기록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팩트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로 피켓시위로 감옥에 갇힌 그녀들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Hunger Strike)이다. 여전히 투표권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그녀들은 하나 둘씩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흑시 수감중인 누군가

가 단식 투쟁 끝에 생을 마감하기라도 한다면 정권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이 돌아올 상황에 직면하자,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철로 만들어진 기구를 입에 채워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후 튜브로 날 달걀을 주입하는 장면은 (Force Feeding), 피한 방울 이 영화의 제목이 (다소 중의적으로) "Iron Jawed..." 로 붙은 이유일게다. 물론, 마지막은 역사처럼 수정헌법 19조, 해피엔딩이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세월호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46일만에 단식을 풀었다. 설마설마했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단식을 시작했던 그 이유가 살아서 싸워야 할 이유로 여전히 남았고, 그의 생명을 건 요구는 청와대 벽을 넘지 못하고 돌아오는 메아리였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천사가 된 300명의 유민이들을 대신해 발언하는 김영오씨들을 상처내고 매도하는 살기 서린 댓글들을 들여다보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컬트 무비보다 더 낫설게 느껴진다. 그저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 한 줄에 기대 천사들의 투쟁을 응원한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이벤트 기간: 8월 ~10월 31일까지

BEAUTY TREND NO.1 아이앤지성형외과 특별할인



아이앤지성형외과만의 동안 V리프팅시스템

20대부터 매끄러운 라인과 자연스러운 볼륨감으로 작고 또렷하게
60대부터 세월을 거슬러 생기 있고 탱탱한 동안라인으로



아무도 모르게, 배아르게, 쉽게,
확실하게 이해하는 비결

✓ 퍼펙트레이저 + 스킨보톡스 + 윤곽주사 (얼굴전체)

~~250~~만원 → **200**만원

울새기라, 써마지의 초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퍼펙트레이저

퍼펙트레이저는 세계적인 의료기 회사인 영국 에너지스트가 만든 슈퍼 롱 펄스 810nm 다이오드 레이저입니다. 리프팅에서 부터 제모, 혈관, 안면홍조, 색소 및 잡티까지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레이저 기술입니다. 단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사술 받을수록 피부를 치료하며 점차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힐링 레이저' 라고도 불립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선진국 VP 고객들이 애용하고 있는 레이저이며 기존의 레이저 사술 장비들보다 한차원 높은 사술이 가능합니다.



아이앤지성형외과만의 연예인 얼굴라인 코지패키지

얼굴선은 부드럽게 코는 오뎅하게 입체적으로 세련된 얼굴라인 완성

✓ 지방이식(얼굴전체) + 코성형
~~480~~만원 → **350**만원

✓ 지방이식(얼굴전체) + 코필러
~~220~~만원 → **150**만원



높은 생착률과 자연스러운 볼륨으로 살아나는 얼굴라인!
아무도 따라볼수없는 아이앤지성형외과만의 지방이식술!

홍콩 'ASIAN NEWSWEEK' 선정 추천도서
한국 최초로 한국, 중국어 겸용판으로 출판된 <한국 미용성형의 고수18>
대한민국 최고의 미용성형의 고수들이 모여 성형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한국미용성형의 고수 18인
아이앤지성형외과 최재혁 원장님이 지방이식술 분야의 고수로 단독 등재

상담 및 문의 : (미국) 보스톤코리아 617-583-2339 (한국) 010-3469-4040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사춘기 전 학동기(7세-12세)의 '올바른 성교육' (올바른 성교육 II)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성의 잠복기'로 '성'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가까운 친구와의 놀이 관계가 중요한 관심사다. 하지만, 3학년 이후로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집단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다른 성(Gender)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관심이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더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웃는다든지, 짓궂은 남아가 여아의 치마를 올린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다. 치마를 올리는 행동은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여아에게는 "이런 놀이는 하기 싫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을 가르쳐주고, 남아에게는 남의 신체를 드러내는 장난이나, 신체를 만지는 놀이의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님을 이해시켜 줘야 한다.

하지만, 부모에 의한 성교육이 너무 앞서가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 너무 훈육적이거나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혹은 너무 큰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또래 그룹과 병원놀이를 하던 7살의 케빈은 실수로 엘리리의 생식기 부위를 슬쩍 건드리게 되었는데, 엘리리는 그때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 엘리리 엄마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도 전에 분한 감정이 쌓였다. 그래서 직접 케빈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다른 엄마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화를 풀었다. 그 결과 케빈은 그 놀이 그룹에서 소외되었고, 다른 엄마들도 케빈의 엄마마저 멀리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소문을 알게 된 케빈의 엄마는 화가 나서 케빈에게 다른 어느 여아의 머리핀도 만지지 말라고 훈육했다. 케빈은 엄마의 이 '과잉 반응'에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은 모두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는

'나쁜 행동'이라 여기게 되었다. 갑자기 케빈은 사회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말도 잘 안 하는 아이로 변했다. 위축되는 행동에 엄마는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테라피 요청을 하였다. 테라피 중 케빈은 엘리리의 생식기를 접촉했을 때 본능적으로 부끄러웠고, 엘리리의 놀란 반응에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 접촉이 '좋은 느낌'이 아니었던 것이다. 학동기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내 몸을 만졌을 때, 혹은 실수로 남의 몸을 만지게 되었을 때,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있다는 인식을 알려 주는 것이다. 만약, '나쁜 느낌'이 있었다면, 바로 표현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테라피 치료 중 성 학대나 성 폭력을 당한 아동 클라이언트들은 아주 명확하게 '좋은 터치'와 '나쁜 터치'를 이해하고 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 느낌을 알고 있다.

케빈이 치료를 통해, 자신이 느낀 수치감과 죄책감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커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성 관계'에 지나칠 정도로 거부감을 갖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리 엄마의 감정적인 해결 방법이다. 엘리리의 엄마가 사려있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아이들은 '올바른 성 관념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존 경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케빈에게 자신이 실수하였음을 사과하게 하고 엘리리에게는 자신의 '나쁜 느낌'을 인식시키고, 같은 상황에서 "싫다"는 표현을 바로 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좋은 터치'와 나쁜 터치'는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을 갖게 한다. 아이들은 '나쁜 터치'로 생겨난 '성'에 대한 '나쁜 비밀'을 자신들 안에 감추려 한다. 그 결과 정말 드

러나 할 아이들의 '나쁜 비밀'은 은닉되고 방치되기 쉽다. 만약 아이들이 '나쁜 터치'로 인한 '나쁜 비밀'을 말한다면 끝까지 경청해줄 길 권장한다. 이야기 중, 부모의 역할 감정, 분한 감정에 다그치듯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부끄럽고, 죄스러워 말문을 닫을 수 있다.

여자 형제와의 사이로 상처가 깊어진 한 여성 클라이언트가 있었다. 테라피 중 4살 때 했던 또래들과의 놀이가 '성 놀이'였음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놀이 중, 한 여아가 자신의 외음부를 만졌는데, 마흔이 넘어서도 그 섬뜩한 느낌이 선명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9살이었던 언니에게 그녀의 '나쁜 느낌'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나쁜 느낌'은 언니로 인해 '나쁜 비밀'이 되었다. 이것을 무기로 그녀의 언니는 그녀가 2학년이 될 때까지 통제했다. 언니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했다.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언니는 말했다. "너 엄마한테 이야기 한다."

여아는 4학년 경부터, 남아는 5학년 경부터 사춘기 전기가 시작된다. 여아는 10세 경부터 유방이 나오기 시작되고, 첫 월경은 11세 경(약 20%)부터 시작하며, 음모도 11세에 15-25% 정도 생긴다.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1, 2년 정도 성숙도가 느린데 음모는 11세에 약 7%, 변성은 약 8%, 사정은 약 2%의 학생이 경험한다. 아이들은 이 급격한 변화에 당황하기 쉽다. 이는 아동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성교육의 제 3단계 시기에 해당된다. 부모의 각별한 관심과 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10살인 스티브가 여름 캠프를 갔다가 PG13의 'Pitch Perfect'라는 영화를 캠프 그룹과 보았다. 이 영화에서 본 성적적인 대사와 행동에 충격을 받고, 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짜증을 자주 내고, 여동생이 조금 가까이 다가와도 막 화를 내었다. 테라피 중, 스티브 엄마는 영화가 PG13이고 여름 캠프에서 보여준 것이

라 관찰을 줄 알았다며, 이제부터는 영화를 같이 보며 반드시 검열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6학년이었던 찰리는 '성'에 호기심이 많았다. 부모님이 직장에 있는 동안 중학생이었던 누나가 찰리를 보살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음란 메시지가 '뿔뿔' 튀어나왔고, 호기심에 들어 갔다가 포르노를 보게 되었다. 그 이후 찰리는 몰래 몰래, '나쁜 비밀'을 만들어 갔다. 아직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특히 이마 앞부분의 전전두엽이 미성숙한 찰리는 포르노를 보며 도파민과 세레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되며 포르노의 중독에 빠졌다.

포르노의 상황과 실전을 혼동하며, 직접 해보고 싶은 충동에 빠졌다. 모임에 있는 여자 클래스메이트를 빈 방으로 불러, 성폭력을 하려 시도하였지만, 여자 클래스메이트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다. 몇 년 뒤, 찰리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한 것이다. 찰리의 중독성은 이미 학교 생활, 교우 관계, 학교 성적, 사회성에 아주 깊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성에 대한 호기심을 휴대폰, 컴퓨터로 불법 음란사이트를 찾아 본다면 잘못된 성의식이 평생 자리잡을 수 있다. 마스크에 의한 성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쉬운 나이이다. 만약 부모의 직장 때문에 인터넷을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인터넷 서비스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버라이즌에는 한 달에 오불 정도를 부과하는 Family Base, usage control 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12살 전의 아이들이 올바른 비판력을 갖고 올바른 성문화를 인식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렵다. 규제와 허용 사이를 균형 있게 맞추는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통을 편리하게 한곳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사랑니발치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악관절(TMJ)
- *보철/비니어
- *수면진정마취
- *신경치료
- *3D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통 상담

(2013-11-31까지)

Dr. Jeong Sook Lee (정정숙 선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봉 선생)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1st.CHOICE DENTAL

IMPLANT • BRACES • COSMETIC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에서
5분 거리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46)

자산분배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2009년 3월 이후 주식시장이 무려 220% (시카고 모닝스타 투자 연구회사)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많은 투자자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거나 막차를 타는 기분이고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욕심과 두려운 마음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후회합니다.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100%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이래저래 후회만 합니다. 사실 후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우연히 한, 두 번은 맞을 수 있지만 반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래를 진정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

를 우리와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투자하면 잘못된 확률이 높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1926년부터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S&P 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0% (Ibbotson Associates)이며 연방 채권 (Intermediate-term US Treasury) 지수의 수익률은 6.75%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야만 돈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채권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수익보다는 자산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자는 거의 없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저금합니다. 이유는 손쉽게 돈을 유용할 수 있고 비상시를 대비한 돈입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투자 종목이 선택됩니다.

투자 종목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오르고 내리는 폭이 채권

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크다는 투자 위험 범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나온 기사를 인용합니다. “도대체 투자자는 어느 정도 바보인가? (Just How Dumb Are Investors?)” 라는 제목으로 제이슨 즈웨이그 재정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의하면 주식시장 자체의 수익률(S&P 500 Index)은 11.1%이지만 투자자 자신의 수익률은 단지 3.7%였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자료는 1984년부터 2013년 말까지 30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1987년 주식시장 폭락을 비롯한 3번의 주식시장 침체기와 1990년대 말 주식시장 폭등과 최근 주식시장 회복 모두를 포함합니다.

투자자의 수익률이 적은 이유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 때문입니다. 대박을 기대하며 투

자하고 폭락하면 털고 나오는 잘못된 투자 습관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해야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이며 줄여서 MPT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투자할 때 수익(return)은 최대한화하면서 위험(risk)은 최소화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바로 '계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불문율을 이론적으로 검증하여 199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마코위츠의 개념입니다.

위의 개념을 이용해서 주식에 60%와 채권에 40% 자산분배를 형성합니다. 과거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8.7%가 되므로 100% 주식투자보다 수익률은 1.4% 낮습니다. 수익이 다소 떨어지지만, 투자 위험

성은 거의 절반으로 적어집니다. 8.7%라는 수익률은 20년 동안 50만 불 투자가 250만 불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며 결정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본인의 나이, 자산 규모,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내에 못 파나요?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부터 2년전에 한국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 상가를 팔려고 하는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는 증여받은 자산을 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내에는 정말로 못 파나요?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팔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이번 주는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은 5년 내에 못 팔다 또는 팔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5년 내에 팔면 특별조항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시 특별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사유재산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꼭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양도시기를 정할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팔 경우와 5년이 지나서 팔 경우의 세금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 당시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위 김한국씨가 부(父)로부터 아래의 상가를 증여받아 이를 증여일로부터 2년 만에 양도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 양도가액 : 10억원
- 증여당시의 시가 : 8억원
- 납부한 증여세 : 1억 8천만원
- 부(父)의 당초 취득가액 : 3억원

그러면 김한국씨의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인 8억원이 아니라 부(父)의 당초 취득가액인 3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한국씨는 본인이 소유한 기간의 가치증식분 뿐만 아니라 부(父)가 소유한 기간의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김한국씨가 이미 납부한 증여자산 8억원에 대한 증여세 1억 8천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를 낼 때 세금에서 공제해 주나요?

아닙니다. 한국의 세법은 이를 세금에서 공제해주지 않고 양도차익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결과 김한국씨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0억원에서 부(父)의 당초취득가액인 3억원과 김한국씨가 부담한 증여세 1억 8천만원을 뺀 5억 2천만원이 계산됩니다. 결국 김한국씨는 상가의 증여 및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8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5억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김한국씨가 상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와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5년 내 양도	5년 후 양도
양도가액①	10억원	10억원
취득가액②	3억원	8억원
납부한 증여세③	1.8억원	해당없음
양도차익④=①-②-③	5.2억원	2억원

2.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두 번째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데, 이는 특수관계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아래의 증여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 세금①이 증여

자를 기준으로 한 세금②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한편 이 규정에 의해 증여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김한국씨가 부(父)가 아닌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아래의 ①김한국씨의 세금이 ②형의 세금보다 적은 경우 형이 세금을 냅니다. (물론 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김한국씨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김한국씨가 낸 수증자산 8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그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② 형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형의 양도차익 7억원 (=10억원 -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규정은 앞의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617-583-2339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미국 최고 명문 보딩학교 탐방 시리즈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페이 스쿨(Fay School) 2

한 반 평균 12명의 소수 정예이고, 코스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반 평균은 8명 정도로 감소 된다. 수업방식은 선생님의 자율 권한으로 토론과 강의를 병행하는 수업을 선호하며, 그룹 프로젝트와 에세이가 주된 숙제이다. 평가 방식은 수업 참여도, 숙제,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룹 프로젝트, 결석여부를 종합 평가하여 학점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방심할 수 없다. 에세이나 숙제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용구 없이 사용하면 아카데미 부정직(Academic Dishonest)으로 처음 적발 시 4-5일 정학(Probation)을 받고, 졸업할 때까지 어떠한 일로든 한번 더 학교 규칙을 어기면 퇴학(Dismissal)처분을 받게 된다.

아카데미 보조 프로그램(Extra-help)이 있어 학생들이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 주어진 시간에 미리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해진 보조시간 담당 선생님 사무실로 가면 즉시 아카데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 학교 도서관과 공부방(Study room)에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할 수 있다. 숙제는 친구들과 도와가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친구와

동일한 형태의 설명과 답을 쓰거나, 친구 숙제를 베끼면 도움 받은 학생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준 학생도 동시에 정학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창의적이면서 정직한 숙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학제는 1년 3학기제로 매 학기별로 성적, 선생님들의 평가서, 그리고 어드바이저의 종합 평가서가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님께 제공되고 있다. 평가서에는 학생들의 노력 점수도 분리하여 평가를 한다. 학기별로 평균 90점 이상 학생들에게 최우수상(High Honor)상을 주며 평균 95점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상을 매 학기별로 수여한다. 물론 과목별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도 과목별 최우수상을 수여한다.

한국과 미국 교육의 큰 차이점 하나는 한국에서는 많은 과목을 획일화된 교과서들을 사용하여 저학년때부터 공부해야 하지만 미국은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등 5개 과목을 깊이있게 학교별, 교사별로 다양한 교육자료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페이는 초등학교(Primary School, PK- 2학년), 저학년(Lower School, 3-6학년), 고학년(Upper School, 7-9학년)으로 학교가 구성되어 있다. 학점은 학생들이 성실히 선생님들이 내어준 것들을 소화해내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최고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술과 스포츠 프로그램

페이의 미술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존감(Self-esteem), 상상력(Imagination), 통찰력(Perception), 타문화에 대한 공감, 비판적인 사고등의 여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디자인 되어 있다. 특히 이 학교에서 아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술 경시대회에서 큰 상을 많이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아트형태, 기술, 소재를 이용한 미술 교육을 제공하며 9학년때는 아트에 재능이 있는 소수의 학생들만 뽑는 Varsity Art 프로그램이 있다.

음악은 학교내 재즈 밴드, 어드밴스 밴드, 앙상블, 코러스, 아카펠라의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의 재능에 따라 학교밖 오케스트라 참여, 주니어 주 음악 대표(All State Band or Orchestra)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필요시 각 악기별 개인 튜터 역시 학교에서 제공하여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는 뮤지컬과 연극이 매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 및 공연되고 있다.

스포츠의 경우는 적어도 3시즌 중 2시즌은 모든 학생들이 팀 스포츠에 소속되어 매일 2시간 정도 연습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타학교와 스포츠 매치 경기를 한다. 매일 연습과 실전 경기를 타팀과 하면서 팀플레이와 협

력하는 것을 배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운동 기술을 터득하게 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도록 해준다. 학생들의 운동 레벨은 경험과 실력에 따라 JV(Junior Varsity), Varsity 두 레벨로 나뉘어 연습과 시합을 한다. 학교 팀스포츠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교내 스포츠(IM: Intramural sports)로 분류되어 있다.

- 가을

크로스 컨트리, 하키(여), 미식 축구(남), 배구(여) 축구등이 팀 스포츠로 제공 되고 있고 골프와 테니스는 교내 스포츠로 흥미있는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할 수가 있다.

- 겨울

농구, 스쿼시, 레슬링(남), 아이스 하키등의 팀 스포츠와 드라마, 스키/스노우보드 등의 교내 스포츠로 분류되어 있다.

- 봄

야구(남), 라크로스, 소프트볼(여), 테니스, 육상등의 스포츠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DuPont Challenge

정식 명칭은 DuPont Challenge Science Essay Competition. 경시 대회의 이름대로 700~1000자 분량의 에세이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할지 몰라도 듀폰은 프라이팬에 쓰이는 소재로 유명한 테플론을 개발했고, 농업, 전자, 화학, 에너지 산업,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기업 이념인 환경 보호, 윤리 준수, 인간 존중에 맞춰 듀폰에서 주최하는 에세이 경시 대회의 주제 또한 지구 식량 문제, 미래 에너지, 자연과 환경 보호, 과학 기술 발전의 4 가지로 정해져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수상은 7-9학년, 10-12학년 두 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그룹에서 우승한 학생에게는 상금 \$1,500와 함께 미 항공우주국(NASA)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Inter-

national

1974년, 당시 창의력에 대한 연구로 명성을 떨치던 E. 폴 토렌스 심리학 박사가 조지아 주 의 한 고등학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초대 받는다. 하지만 토렌스 박사는 오히려 영재들조차도 미래 지향적인 사고 방식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데에 충격을 받고 미래 문제 해결 대회(Future Problem Solving Bowl)을 개설한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홍콩, 포르투갈 등의 41개 지부에서 매년 25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큰 대회로 성장했다. 대회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세계적 관점에서의 여성 인권, 감시 받는 사회 등 하나 같이 미래에 중요한 이슈들이 주제로 주어진다. 학생들은 문제를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데까지 문제 해결의 6단계를 거치게 된다. 4-6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Junior level, 7-9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Middle level, 10-1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Senior level로 나뉘어져 있다.

FIRST Lego League

학생들에게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FIRST 재단과 세계적인 유명 완구 회사인 Lego에서 합작하여 만든 로봇 공학 경시 대회이다. 대부분의 과학 경시 대회가 고등학생 대상인데 비해 FIRST Lego League는 4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회 중에서는 유치원생-3학년

과학 경시 대회 (3)

대상의 Junior Lego League, 7-12학년 대상의 Tech Challenge, 9-12학년 대상의 Robotics Competition도 있다.) 참가 학생들은 로봇의 명령 수행 능력과 디자인적 요소,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다른 팀원 사이의 협동 등을 심사 받게 된다. 단순히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고 조종하기보다는 매년 바뀌는 테마에 맞춰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올해의 테마는 "World Class: Learning Unleashed": 10 명까지 마음이 맞는 팀원을 모아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식이다.

과학 경시 대회에서 입상하는 방법

어떤 경시 대회든 상관 없다. 모든 대회는 참가 학생의 독창성, 창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열정적으로 알고 싶은 주제를 깊고 깊이 연구해, 나만의 우수한 연구 주제로 내세우면 그게 바로 독창성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 같아도 하나의 작은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융합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Google Science Fair 최우수상 수상자인 Brittany Wenger는 2010년 첫 출전한 Inte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에서 신경망을 응용한 연구로 컴퓨터 공학 부문 3등을 했다. 다음 해, 같은 신경망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유방암 연구에 초점을 맞춘 Brittany는 ISEF 의학 부문에서 2등을 했고, 그 이후로도

같은 주제로 ISEF에서만 4번 수상, Intel Science Talent Search 8등, 그리고 Google Science Fair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력을 쌓게 된다.

사실 과학 경시 대회의 입상을 좌우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이다. 물론 아무런 결과나 실적이 없는 연구를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를 하면 사기다. 하지만 반대로 대단한 연구를 통해 놀라운 결론을 내렸어도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 엉성하면 심사위원에게 선택되기 힘들다. 어릴 때부터 과학 잡지를 즐겨 읽고 여러 경시 대회에 노출이 되면서 창의성과 표현력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이상으로 과학에 대한 열정이 깊어져 가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MIT 입학사정관에게서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다. "MIT에서 과학 경시 대회 입상자를 합격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잘못된 이야기다. 어차피 우리가 합격 통지를 보낸 후에 수상자들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회 1등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의 경시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고 자신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한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동양식당 히바치/스시 우스터 클락유니버시티, 저녁 한끼 Full 리커 면허증
연매상 \$250,000 매매가격 \$129,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14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8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67,000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3,000 매매가격 \$3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퓍아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식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식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